

한 가족내 복합적 문제(예를 들어 알코올) 해결을 위한 상담센터와의 연계를 하는 등 가족 전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나타나고 있음.

ii 주거 및 생활비용에 대한 부담감

- 영유아 및 아동을 가진 부모들은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고 있음. 이는 마포가 가진 지역적, 지리적 장점 뿐만 아니라 마포에 위치한 영유아 및 아동 관련 복지 시설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한편 급격하게 높아지는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지 모른다는 불안정한 심리를 많이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저소득계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등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함. 바우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는 하나, 2~3만원 정도의 본인 부담금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경우 경제성 장애를 가진 영유아는 특히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음.

iii 전문센터의 부족

- 일반적인 수준의 부모교육은 자주 있는 편이나, 영유아의 월령 또는 단계별 성장과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나타냄. 이전에는 부모세대나 주변 이웃들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비공식적인 정보들만으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음. 공신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는 영유아 지원 전문센터를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이 필요한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음.
- 인터넷, 교양센터 같은 정보접근 방식은 개별화된 사례를 다루기 보다는 일방적인 집단교육의 형태가 많고, 개별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함. 영유아가정은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나, 현재의 사회적 환경은 물리적 공간을 비롯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함.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교육에 대한 맞춤형 지원 혹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iv 가족 지원 플랫폼 구축 필요

- 동주민센터의 사례관리에 이어서 경찰도 여경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시도한다고 함.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례관리를 위한 정책적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 가장 시급한 것은 사례관리 시스템들을 조정하고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연계된 지원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네

트위크가 가동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영유아·아동에 대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한 부모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서비스와 지원의 총량을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자원이거나 기능의 물리적 증가를 각각의 센터 기능에 탑재하는 방식보다는 - 기존 센터에 새로운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음 - 전체 기관들을 한눈에 파악, 가정의 욕구에 맞는 자원 또는 프로그램 등을 투입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부분임.

v 가정 내 안전 문제 대두

- 가정내 영유아·아동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함. 부부상담을 위한 치료의 부재 및 경제적 지원의 어려움, 부모의 정신과적 질환 등에 대한 개입 한계, 다자녀 가정의 돌봄 한계성, 아동방임, 학대 등 가정 내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유아 아동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음. 특히 신체적 질병, 부부갈등, 부모의 정신과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상황이 악화된다 하더라도 모니터링이 어려움.
- 모든 서비스가 욕구에 기반하다 보니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지원도 가족 당사자의 요구가 없으면 개입이나 지원의 한계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영유아·아동에 대한 학대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 예를 들어 부모에 대한 병원치료 명령 - 막상, 집행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음. 즉, 자녀양육의 기본단위인 가정 내에서 조차 '안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개입과 지원의 한계가 있음.
- 마포구 차원의 영유아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어린이집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각지대나 취약계층, 보육시설 미이용 가정에 대한 영유아 아동의 안전 확보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함.

㉔ 노인복지

i 노인복지시설 분포의 지역적 편차

- 마포구의 서쪽 지역이 여가생활시설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함. 이는 대표적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의 절대숫자가 모두 동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욕구가 표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민원의 형식으로 접수된 바가 있었음. 이용시설의 지역적 편중 현상에 따른 것임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소득수준과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민원 형식을 취하는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임.

- 편중된 이용시설이나 지원센터 등을 이동 혹은 신규설치하려 해도 건물매입이나 신축을 위한 비용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 즉, 땅값이나 건물임대 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 매우 비쌌.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존 시설을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 경로당은 마포 동쪽 지역(대흥, 염리)이 재개발 되면서 기존 경로당들이 인근 기존 주택가 지역으로 이동하며 기존의 경로당과 중첩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 이를 타개하기 위해 경로당 통합을 통해 시설의 프로그램 전환이나 활용 방식의 변경 등 다각적인 형태의 시범적 운영을 진행하려 함.

ii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격차

- 노인복지에 대한 마포구청의 정책적 노력은 민관협력을 비롯하여 정책요구 수용 등 공급자 수준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요자 측면에서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의 습득과 전달, 활용에 있어서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재개발 이후 노인인구의 특성이 변화되고 있음. 저소득/수급 노인의 숫자가 점차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가활용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증대되어 정보화 교육(인터넷, 스마트폰 활용)의 수강인원 증가 및 프로그램 개설 요청들이 증가하고 있음.
- 여가생활 및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책과 정보 등의 공유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돌봄, 건강, 일자리 사업 등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정책)서비스에 대한 정보 전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소득 및 신체활동(독거 및 외상)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위해 당사자간 연계를 통한 노노케어 및 정보제공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룹을 선발하여 일자리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효과적일 것이라 봄. 이를 위해 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도 고려해 볼 수 있음.

iii 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의 한계

-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욕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의 부족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욕구 파악도 어려운 수준임. 이는 생활시설의 어르신이나 재가 어르신 모두 마찬가지임.
- 노인 돌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낮아서 돌봄 직업군 및 지역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자긍심 및 적극적 참여가 어려운 실정임. 방문요양과 데이케어 모두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수요와 공급, 지역사회와 센터간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수준임.
-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차원에서 '개인 돌봄'을 '지역사회 돌봄'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음. 돌봄에 대한 수준과 개념을 신

체적 차원에서 심리적 차원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상담, 치매, 자살, 사각지대 관리 등의 전문적 영역의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등의 공급을 현 수준보다 끌어올릴 필요성이 있으며, 여가생활시설로서의 기능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돌봄을 강화하는 형태로 기능을 다양화 하는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심신활동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iv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활성화

- 마포구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어르신들은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 특히 마포구는 노인인구 대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총량적으로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음.
- 공익형 일자리는 27만원/월, 시장형 일자리는 210만원(/연)을 지원하고 있음. 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참여자의 자격조건에 따라 저소득은 공익형 일자리, 일반은 시장형 일자리로 구분됨. 공익형 일자리사업은 지원되는 금액이 시장형 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비를 비롯한 기초연금등과 연동이 되어 있고, 시장형은 소득과 연동이 안되지만 일을 매우 힘들어 하여 활용이 잘 안됨. 결국 일자리사업의 예산이 100% 활용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남.
- 어르신의 생계형 일자리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진하는 것도 방안임. 경로당의 기능전환 및 통합의 일환으로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 노노케어 등을 통한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커뮤니티 케어와 일자리 사업의 매칭, 어르신에 대한 정보제공사업을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v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사회커뮤니티 케어 중요성 부각

-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사업,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 전통적인 재가복지사업 등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독거노인의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사업임.
- 마포구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 중 약 8천명이 독거노인으로 파악되고 있음. 다른 지역에 비해 높지는 않으나, 최근 마포지역 재개발로 인한 사각지대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졌음. 재개발 이후 임대주택 입주를 포기하고 주거의 불안정이 더욱 심화됨(고시원 및 주거불안에 따른 긴급사례 발생).
- 특히 우울증을 비롯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상담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짐. 그러나 독거노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욕구에 대한 현황파악이 우선 시급한 상황임.

vi 여가문화서비스(프로그램)의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 복지관 및 센터, 경로당 등의 이용 어르신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음. 거주지별, 지역별 소득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프로그램 이용의 패턴이나 경향성은 '재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임. 신체적 활동성 여부를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
-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도 맞물려 있는 욕구이지만, 노인을 위한 여가생활시설의 부족은 마포구가 지닌 지역적 한계성임. 프로그램 증개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데, 땅값이 비싸서 어려움. 이에 따라 기존 경로당을 활용하거나 기능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 이를 위해 경로당의 시설 개보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공간 활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경로당의 환경이 개선될 경우 회원의 숫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컴퓨터로서의 주된 기능 이외에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결합된 지역카페 등도 시범적 운영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도 있음.

㉔ 장애인 복지

i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 마포구내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수준 내지는 경제적 욕구가 얼마나 되는지 공급자 측면에서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 수당과 연금 등 경제적 지원을 비롯하여 돌봄에 있어서까지 전반적으로 당사자를 비롯하여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현 시점에서는 현금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금융정보 및 가계관리에 대한 지원까지도 고려해야 함. 금융기관에서 통장(계좌) 개설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체크(신용)카드를 만드는 등의 모든 절차가 강화되었기 때문에 장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음. 개설된 체크(신용)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불명확하게 인지되어 개인의 신용정보가 불량해 지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기도 함.
-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현실적 수준의 경제적 지원을 마포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금융거래정보 습득 및 활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기관과의 연계 방안, 당사자 교육 등의 실질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ii 체육여가시설의 부족

-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스포츠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마포의 서쪽 끝인 상암에 있다보니 접근성이 약함. 홍보의 효과도 크지 않음.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에 신체적 건강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 보강이 필요함. 기존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이 있으나, 예산, 이용횟수 등의 한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지역 내 헬스 및 문화시설 등에 장애인의 실질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연계 방안 필요하고, 장애 종류 및 수준에 대한 체육 프로그램 및 강사(인력)의 지원이 필요함.

iii 장애인의 이동권리 보장

-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서 단체 이동을 위해 마포구 자체적인 share 버스제도가 운영되었으면 함. 각 시설이나 센터에 보유된 승합차가 적고, 민들레카 등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운전기사의 지원도 병행되어야 함.
- 개별적인 이동권 보장에 있어서도 물리적 영역이 마포구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역경계를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되돌아 올 때 지원이 되지 않게 됨. 마포구만의 장애인 이동권 지원 프로그램 및 예산의 확충이 필요함.

iv 장애인 일자리 부족

- 공공일자리와 관련하여 장애인 개별 특성에 맞춘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노인일자리와 중첩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보다는 노인 일자리 측면에서 선호되는 경향이 지역사회에 존재함. 역으로 노인일자리 영역에 장애인이 배치될 경우 어르신들의 생계와 맞물리는 경우도 발생함. 상호 경쟁적인 형태의 일자리 제공은 지양해야 함.
- 직업재활시설이나 작업장을 운영하는 방식은 돌봄과 일자리가 함께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지원인력(직원)의 숫자는 매우 부족함. 회계부터 돌봄까지 영역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지원이 책임져야 함. 일자리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문제, 작업장 입지 조건의 한계성, 생산된 물품의 판로 등 막상 작업장이 있어도 사회적 환경에 맞출수가 없는 상황임.
- 일반 사업장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시행되기 전 비장애인 직원의 장애에 대한 이해 및 인권교육, 성교육 등의 선행교육이 필요함.

-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영역과 종류의 파트타임 일자리를 발굴하여 전문가로 양성하여 투입할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에 자원봉사자 및 50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전문가 양성을 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임.

v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 서울지역 25개 자치구 평균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의 숫자가 3개라면 마포구는 2개소 정도의 수준으로 시설 확충이 시급함. 그러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보니 한계성이 있음. 이는 여타 복지 분야도 함께 겪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마포구의 장애인복지 분야가 특별히 우수한 것은 아니지만, 최근 3~5년 사에 각종 이용시설과 센터 등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며 일정 정도 단계에까지 올라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있음. 그러나 행정차원에서 통합되어 있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부서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복지 예산이 여타 복지 분야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어 있음.
-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행사와 프로그램만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남. 시설 및 센터가 네트워크도 원활하게 구축되어 있고, 마포구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을 연대사업으로 진행하기도 함. 정보 공유와 전달도 수월함. 그러나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여전히 있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과 어울리는 현실적으로 프로그램이 필요함. 관심을 갖는 것 이상으로 선뜻 손을 내밀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중요함.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이와 같은 역할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함.

vi 인적자원의 한계

-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인력과 자원봉사 인력 등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한계성이 발생하고 있음.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매칭이 되지 않는 현상임. 즉, 필요시간대와 활동시간대,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와 활동이 필요한 연령대, 필요한 전문영역 등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
- 시설과 센터에 소속된 직원 배치현황, 복리후생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수준임. 24시간 케어를 위한 인력의 부족, 이용인 성별 비율에 대응되는 직원 성별 비율 부조화, 활동보조 인력의 편중된 배치 및 운영의 문제점 발생, 노령화 되는 장애인에 대한 대책 필요,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의 부족 등 장애인 복지분야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문화된 인력의 증가된 배치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임.

vii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욕구를 지원하는 환경 마련

-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있지만, 현재의 환경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음. 첫째는 당사자에 맞는 주거환경, 둘째는 활동지원(보조) 등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 완벽한 자립생활에 한계가 있다면, 체험홈이나 그룹홈과 같은 중간단계의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 단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함. 아울러, 지역사회의 인식개선 및 인프라 구축과도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고 자립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닥칠 위험상황(행방불명)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함.
-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장비나 인프라 등의 지원책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함. 전동휠체어 지원 및 소모품 교체, 수리 등의 보조제도와 수화통역, 법률서비스 지원, 의료지원에 있어서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마포구 차원의 점검과 평가, 여론수렴 등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㉔ 저소득 계층의 복지

i 광범위한 의료사각지대

-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약함. 특히 치과진료 및 단가 높은 수액 등. 민간 영역의 자원이 존재하기는 하나, 사례관리 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자원연계의 수준 차이가 발생함.
- 병원에 입원할 경우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에는 간병비의 비급여 항목 조항으로 의료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예전에는 자활의 간병사업단을 통한 지원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제도가 없어짐.
- 저소득계층의 노인돌봄, 정신질환발생시 가족 및 이웃과의 갈등, 아동의 게임(핸드폰) 중독, 아동 돌봄 부족 혹은 방임 등 전반적으로 심신보건과 복지 등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발생하고 있으며 발견이 되어도 가구주의 거부로 개입이 어려움.
- 마포구는 민관협력이 이미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연계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사례관리 네트워크, 공동체 활성화(동복지협의체) 등 협력시스템이 이와 같은 의료사각지대 현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현실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마련할 시점임.

ii 주거관련 고통

- 마포구의 주거관련 민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음. 과거에는 저소득 계층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저소득이 아닌 일반 주민도 주거비 상승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고 있음. 보증금, 월세 등의 상승 수준에 있어서 가구 경제의 감당이 어려움. 이 결과 일시적으로 고시원과 같은 취약거주시설로 이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법정대상자를 위한 매입 임대 등이 있지만, 본인 부담금 450만원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 특히 저소득가정에 화재 등의 재난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 거주지에서 이동하거나 분리되어 살기를 원하는지만, 현실적인 지원의 방법이 없음.
- 1인 가구, 취업준비생 등의 경우에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불안정 세대임. 이와 같은 주거불안 계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의 공가를 활용하는 방안 모색 필요.
- 임대아파트 혹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보다 전세 형태로 임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부담이 덜하지만, 전세자금이라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함.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생활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생계비의 부담이 큼.

iii 지역 내 정신건강 사각지대에 대한 개입 필요성 증대

- 정신건강법의 개정으로 개인 및 가족에게 정신건강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이 역시도 센터에 등록을 하는 등의 '본인 동의' 과정을 거쳐야 가능함. 법률 마련과 행정 시스템의 불일치로 권한과 역할의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함. 아울러, 경증으로 판정될 경우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되는데 환자 본인에 의한 약물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의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본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의 공유가 병원(센터)에서 동주민센터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례관리 케이스에서 누락되는 등의 정신보건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권)에 대한 욕구는 점차로 증가하고, 정신건강센터에 찾아오는 주민들도 점차 증가되고 있음. 정신건강의 문제도 우울, 알콜, 자살 등의 감정 및 스트레스 등 사회적 질환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결국 민간 및 공적 자원의 긴밀한 연계협력이 필요한 상황임.
- 독거노인 가구, 다문화가구, 1인 여성가구 등 가족형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구의 해체도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의료시스템은 부족함. 특히 수급권의 탈락에 대한 불안감, 저소득으로 인한 가족 내 신용불량 및 금융사고 대처방안 전무, 각종 세금 등의 체납과 채무관련

독촉 등에서 발생하는 우울감 발생의 수준이 우려를 넘어, 자살을 결심(실행)하는 빈도가 점차로 증가함.

- 찾동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내 저소득 주민의 '은둔형 개인'의 발굴이 많아지면서 정신건강 권 보장을 위한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지역사회내 복지통장이나 사례관리자들에 의한 접근을 시도하려해도 돌발 상황이 우려되어 개입이 쉽지 않음. 점차로 증가되는 정신 건강질환에 대한 중간단계적 접근(본인 미동의 상태)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iv 자립자활을 위한 탈수급시기 조정과 돌봄공동체 지원

- 저소득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보장 지원책은 예전에 비해 보완이 잘 되어 있으나, 수급 권 진입 및 유지가 어려움. 특히 노동시장 진입시 수급기준을 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제약 조건을 걸게 됨. 탈수급이 유예될 수 있도록 마포구 차원의 기금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취업준비와 빈곤탈출을 위한 구체적인 자활 지원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아울러, 취업을 하려 해도 저소득 계층은 돌봄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사회내에서 이웃간 돌봄공동체가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수급권 유지와 탈락의 경계선상에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불안감은 경제적 고통을 넘어 정신적 질환의 수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2~3명의 자녀가 있을 경우, 첫째 자녀가 졸업 후 취업을 하려해도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는 순간 수급권이 탈락되어 형제들의 학비지원(감면)을 비롯한 각종 혜택의 탈락을 막고자 아르바이트를 전전함. 이와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적절한 취업시기 및 기술습득, 경력 등에서 자의반 타의반 피해를 받게 됨. 이는 가족간의 갈등상황으로 발전되기도 함.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 됨.

v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향상 방안 모색

- 사례관리 영역에 정신건강센터가 들어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음. 노인 및 장애인복지관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민관협력 수준, 사례관리 참여도 등을 고려하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민관협력 사례관리 시스템이 현 수준보다 더 강화될 수 있는 역량이 마포구에는 있음.
- 현 시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임.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에 공공도 합류하였는데, 현재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민간영역이 침해받는다 인식과 우려가 있으나, 시너지 효과 발휘를 위해서는 협력관계의 강화가 필요함.

vi 부양의무제도에 따른 생존권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시급

- 취업시기의 자녀, 동거하지 않는 부모나 자식의 재산 및 경제활동 등에 따른 생계비 삭감이 수급자를 '삶의 궁지'에 몰아넣는 울가미로서 존재하고 있음. 법적 행정적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예외적 '분리'제도를 마련하여 경제선상에 위치한 사각지대 주민의 생존권을 시급히 보장하여야 함.

㉞ 다문화 대상자 또는 가정

i 한정된 보육시설

-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보육시설에서는 다문화 자녀를 케어하기에 어려움이 따름. 보육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생활이나 절차를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일반 가정의 자녀만큼 원활하게 소화하기 어려움. 예를 들어 대상아동이 언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아동보육시설의 프로그램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보육시설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가능함. 결국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처음으로 사회경험을 하는 보육시설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는 이후 정서 및 성격형성에도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른 시기부터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교육서비스, 특히 언어문제를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요구됨. 다문화 당사자에 대한 사회서비스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녀들에 대한 사회서비스가 요구됨.
-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지 않음.

ii 의사소통의 어려움

- 기혼 여성의 경우 온전히 가족 구성원으로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그것의 가장 큰 이유는 언어문제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이 가장 큼. 언어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주간에 진행되는 것이 많은데 이는 다문화 당사자의 상황과는 괴리됨. 다문화 당사자는 경제적 문제로 주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임.
- 마포구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 야간에 한국어 교육을 진행시켜 보았는데 취업자들에게 호응이 괜찮았음. 또한 가정방문 교육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 대상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고민하여야 함. 예를 들어 자녀와 같이 한국어 교육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동일국적의 선배 이주민을 멘토로 하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임.

iii 언어, 사랑이 막힌 결혼생활의 어려움

- 언어적인 장벽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결혼생활은 부부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됨.
- 결국 부부간의 애정을 쌓아야 하는데 이들 가정이 상대적으로 저소득 가구가 많은 관계로 여유롭게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갈 만한 환경적 여건이 조성되지 못함. 현재 다문화 시설이나 센터를 후원하는 기업에서 야외나들이, 모국방문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가 더 늘어나야 할 것임.
- 다문화 이주민과 결혼한 내국인의 피해사례도 발견됨. 국적취득 등의 목적달성직후 집을 나가서 연락이 안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언어장벽 문제해결이 중요함.
- 언어폭력, 알코올 폭력 등 가족 내에서 다양한 폭력문제 발생의 주요한 원인이 됨.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의 경우 이러한 폭력으로부터 내국인보다 보호받고 있지 못함.

iv 단순노무직 중심의 취업과 낮은 소득

- 다문화 당사자들은 상대적으로 단순노무직 중심의 취업을 함. 마포구의 경우 이러한 단순노무직 일자리는 많지가 않고 사무직 위주의 일자리가 많다 보니 이들 다문화 대상자들은 취업 시 원거리 출퇴근이 불가피함. 그 결과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물리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
-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함

v 다문화 대상자 또는 가정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 마포구에서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적은 다문화 대상자들에 대한 독립적인 지원은 거의 없음. 또한 국적취득 중심의 지원체계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다문화 이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더 어려움. 국적취득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
- 사업편성을 보면 국·시비 중심의 사업이 대부분이고 구청예산편성으로 인한 사업은 많이

없음. 구청의 전향적 예산편성이 필요함. 현재는 기업 후원금으로 사업편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18년 1월부터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 지원센터의 통합이 시작되었는데 주 영역은 일반가정 중심임. 향후 통합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인데 다문화 대상자들이 내국인과 차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 또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들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 사업이 더 중요함.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이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가족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요구됨.

㉞ 여성 1인 가구

i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덜하나, 주거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남

- 소액의 유급자원봉사활동, 자활사업 참여, 공공근로 참여, 직업훈련 참가 등 경제생활을 위한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 마포는 여성 1인 가구가 많은 곳이라 여겨짐. 망원, 성산동 지역은 40~60대의 1인 여성가구가 많고, 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없음. 시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 여건이 갖춰져 있음. 그러나 점차 주거비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주거환경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기 시작함.
- 대학가 주변의 20~30대 여성들은 공포감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 여겨짐. 고시원 등에서 생활을 하는 경우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함이나 치안에 대한 욕구가 클 것으로 여겨짐.
- 거주지의 안전은 주거건물, 주거지역, 이웃들과의 관계에 따라 수준 차이가 발생함. 윗집과 아랫집, 옆집 등 이웃들과 조금이라도 인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고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함.

ii 본인의 건강과 부모의 건강을 감당해야 하는 부담감

-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유지의 문제 등을 겪고 있음. 특히 중년 이후의 건강신호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 홀로 전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의료비의 부담이 매우 큼.
- 노령의 부모가 노인성 질환을 겪거나, 갑작스런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부모를 케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럴 때 매우 불안함. 특히 부모의 입원을 통해 '혼자'인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위기감을 느낀 적도 있음.

- 만약 혼자 입원을 하게 될 경우, '나'를 돌봐 줄 사람을 생각하면, 한번 쯤 병문안을 올 수는 있겠으나 이웃이나 지인들에게 의지하는 것은 현재로서 어려움. 건강을 지키는 수준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임.

iii 1인 가구의 욕구와 실정에 맞는 정책적 지원 필요

-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취업 교육이나 교양 교육이 다양함. 한편 취업교육의 경우 교육 이수 후 활용 여부임. 취업이 거의 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우면 창업인데, 그것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음. 3포세대인 젊은 층도 문제이지만, 중년 혹은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이 전혀 없음.
- 마포는 교육인프라가 좋은 편이라 도서관,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중복되는 것이 많음. 이와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은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여유로운 계층임.
- 장기간의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간신히 교육을 이수해도 직업으로의 연결이 안 됨. 교육을 통해 희망을 가지려 해도 후속 연결이 안 됨. 강사나 학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회의감이 들기도 함.
- 직업상담사에게 상담을 하지만, 직업상담사 자체도 기간제로 11개월 근무기간 한정이라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 함. 이 사람들도 본인들의 일자리가 불안한데, 무엇을 지원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효과적으로 직업을 매칭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음.
- 들을 만한 교육, 좋은 콘텐츠의 교육은 참여가 어려운 시간대임. 마포구에 살면서 좋은 것도 많고 문화적으로 좋은 환경이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는 막상 어려움.

㉔ 한부모 여성

i 심각해지는 경제적 고통, 그리고 사회적 시선의 부담감

- 수급비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그러나, 이것도 금액이 누적되어 고통스러움. 수급비를 받으면 이자 갚아나가는 것이 급급함.
- 서로 연락되지 않던 일혼살 남은 어머니가 건물청소로 70만원을 받은 것이 동사무소 전산에 나타나 담당 공무원이 수급비 10만원을 깎겠다고 바로 연락이 옴. 동사무소에서 가서

민원을 넣었지만,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음. 그나마 버티고 있던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살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 절박함이 밀려옴.

-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오면 겁이 나고, 서류가 우편으로 오면 보기 겁남. 수급자에게는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염라대왕처럼 두려운 존재임.
- 동네에서도 수급자에 대한 안좋은 시선이 느껴지곤 함. 동사무소를 갈 때도 허름한 복장으로 가야하고, 배낭을 메고 동네를 지나가면 '뭘 넣고 다니나?'하는 시선이 느껴지기도 함. 더운날 현관문을 닫고 있으면 에어컨을 달고 사는가? 하며 눈초리가 이상함 - 수급자는 에어컨을 달면 안되는가 하는 억울함 -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비용을 지불 할 때 의료보호인 것이 티가 나서 속이 상함.

ii 빈곤의 대물림

- 아들이 소규모 회사에 취업을 했지만, 정리해고를 당함. 실업교육을 비롯한 취업성공패키지 등 여러 가지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 구청에서는 상담, 교육 등에 대한 참여를 계속 요구하나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이 고스란히 수급비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자식도 수급권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음. 만약 4대보험이 적용되는 곳에 취업을 하면, 수급권이 탈락되거나, 수급비 및 학비지원 등의 혜택이 줄어들게 됨.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형제들의 교육이 어려워져 어쩔 수 없이 4대보험 혜택이 되지 않는 곳으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함. 결국 경력을 쌓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가 지나가 버리는 악순환이 반복 됨.
- 요즘 같은 시기에 취업이 쉬운가? 4대보험이 안되는 곳에 취업을 하거나, 혹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하면 월급이 생활비에 보탬 수 있는 수준이 안됨. 취업성공패키지 등 구청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계속 수급권 탈락된다는 연락이 오고, 결국 부모는 부모와 자식간에 서로 괴롭히는 결과만을 갖게 됨. 차라리 수급권을 포기하는 가정도 나오고 있음.
- 딸아이의 결혼을 위해 대출, 사채 등으로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도 함. 딸이라 귀하게 키우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 그런가?' 하는 무력감과 자책감이 들게 됨. 큰 아이는 무엇을 하려해도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힘들어 함. 전세금 350만원과 두딸이 전 재산인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안좋은 뉴스를 보게 되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음.

iii 정신적 어려움 : '우울증'

- 수급과 차상위의 경계선상이 있는 것처럼,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밀려옴. 자식들의 성장과 독립으로 수급권이 탈락되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음.
- 귀가하면 '지옥'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음. 마음을 달래보려 시작한 음주가 캔맥주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는 큰 병으로 이어졌고, 우울증이 같이 오게 되었음.
- 자식들은 간혹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지만, 죽은 아빠를 어떻게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엄마까지 죽으려고 하니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그러나 날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 같음. 집안을 정리하고 있으면 '죽을 준비'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음.

iv 개인 단위에 대한 지원 절실

- 수급의 기준을 자식하고 분리하는 것이 절실함. 작은 아이의 학비 지원을 위해 큰 아이의 취업이 막히는 것이 수급권임.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원인이 되고, 가족의 해체를 불러일으키며, 가난의 대물림을 끊지 못하게 됨.
-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약화됨. 이에 대한 해결책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통해 극복하였음. 가족단위의 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는데, 또 다른 여성 한부모 가족을 만나면서 서로를 확인하고, 지지하고, 가족 간 단단해지는 성장을 경험하게 됨.
- 임대아파트 단지는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수월하나, 주택가에 거주하는 한부모세대는 이와 같은 정보에서 취약함. 결국 가정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고가 나게 되므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함.
- 한부모세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그러나 수급권이 없으면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함. 아울러,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많고 복잡함.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서류를 떼어야 하는데, 한부모들은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데 이런 취약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음.
- 정부의 지원 정책을 받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하고, 정보를 파악해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서류를 준비해 가면 무시를 당하고, 관공서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이 있음. 유연한 시설이나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차라리 더 친절하고 안전함.

㉠ 학교 밖 청소년

- i 삶의 대안을 학교'밖'에서 찾음

- 인터뷰참여자들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입시경쟁에 따른 심한 학업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그에서 비롯된 관계적 스트레스(가족 및 또래, 담임교사와의)가 상당했음. 심리적으로는 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기도 하였음. 결국 자퇴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였음.
- 스트레스 때문만이 아니라 반드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졸업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으며, 인터뷰대상자들의 부모 또한 굳이 학교를 다녀 졸업을 해야만 한다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음.
- 예전에는 학교부적응이나 일탈 등의 맥락에서 학교밖청소년이 되었다면, 최근에는 자녀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선택을 지지하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음.

ii 넘치는 자유, 그러나 그것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의 한계

- 등교를 하지 않은 첫날 찾아온 것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 지 알 수 없는 당혹감 이었음.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동안은 집에만 있거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시간을 쏟을 수 밖에 없었음.
- ‘학교밖청소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한동안 핸드폰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썼음. 막연하게 SNS를 하거나 유튜브를 하다가 결국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마주하게 됨.
-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학교 안에 있을 때 좀 더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함. 학교라는 곳이 청소년이 아닌 소속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iii 자기정체성 변화의 과도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

- 자신이 지금 배우는 시기인지, 일하는 시기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시기가 찾아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알바나 인턴을 해야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 됨.
- 단기적인 일자리를 통해서 용돈벌이를 할 수는 있으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주당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에 매진해서 기술이나 능력을 배우기도 어려움. 그렇다고 남는 시간에 무언가를 배우는 것도 애매함. 인터뷰대상자들은 자신이 학생이 아닌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취업준비생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모호한 포지션이었음.
- 와중에 검정고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었으며, 학교를 다니는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불규

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 같은 죄책감과 싸우고 있었음. 인터뷰대상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상담지원이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할 것으로 봄.

iv 진로지도를 해줄 관리 역할이 필요함

- 인터뷰대상자들은 자신 스스로 선택한 학교밖 청소년의 삶이지만 너무 제도권 밖에서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낌. 단적인 예로, 청소년기관을 통하여 인턴으로 단기취업을 한 경우에 취업 이후의 후속관리를 기대하기 어려웠음. 일자리의 수준이나 내용에 있어서 천차만별이었고, 오히려 차별경험만 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었음.
- 마포구에 지원을 바라다면, 학교밖 청소년이 다양한 직업선택지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진로체험의 양과 질을 높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또한 학교 소속에서 이탈한 경우에 진로지도를 해줄 기구를 만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학교를 떠나기 전에 미리 안내를 받았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음.
- 많은 학교밖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검정고시를 보려는 인식(고등학교 졸업장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경제적인 또는 교육적인 지원도 필요함.

② 인터뷰 분석 결과

- 첫 번째는 '주거'에 대한 욕구임. FGI 대상자들이 사회적 약자임을 감안하였을 때 주거유지나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우선순위에 있을 것임. 한편 지역 내 재개발과 입지적/환경적 요건들이 변화함에 따라 주거비용이 올라가는 추세이다보니 주거에 대한 불안함은 점점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FGI 대상자들은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상승을 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근 지자체로 이주를 하기도 하나, 기본적으로는 마포에 머무르고 싶어 함. 따라서 보다 열악한 주거환경 일지언정 마포구내에서 주거를 해결하려고 함. 이러한 상황 속에서 1인 가구, 청년, 저소득 독거노인 등 주거비가 삶의 질과 직결되는 계층들의 정책적 지원 욕구는 점차 더 커질 것임.
- 특히 마포의 인구구조상 1인가구의 구성 비율이 높는데 이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점검과 지원책 마련은 앞으로 중요한 정책영역이 될 것임.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고시원이나 원룸 등은 건물 자체에 대한 점검과 주변 환경 정비가 필수적인 부분임.
-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욕구임. 일자리 문제는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포구내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 중요한 것은 일자리 관련한 지원들, 취업 관련 교육이나 취업 연결 서비스들의 질과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임. 이번 인터뷰대상자들 중에서 새롭게 발굴하여 인터뷰한 학교밖 청소년, 한부모여성가구주, 1인 가구(중장년 여성)은 적절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포구의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였음. 취업과 관련된 교육의 경우, 여러 기관에서 비슷한 유형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았음. 그러다보니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고, 교육의 질 역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음. 일자리의 문제가 사회적 취약계층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관련 교육이나 취업 연결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하나, 시간이 있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음.
-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야간 교육, 취업 연결과 이후의 관리 등 일자리와 관련하여 구 차원에서 전반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며, 일자리 수요-공급에 대한 개입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욕구임. 인터뷰 결과 인터뷰대상자들은 마포구가 가진 장점들에 대하여 비교적 만족하고 있었고, 이는 복지 기관이나 일반적인 인프라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음.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여건에 만족하는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사회 공동체 차원의 돌봄과 관심에 대한 필요를 호소하였음.
- 특히 복지 욕구가 다양해지고 개별화 됨에 따라서 대상자 개개인별로 관리되어야 하는 사례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연계 가능한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였음. 이는 현재 마포에 위치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들의 네트워크이나 통합적인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잡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 인터뷰 대상자들은 구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이웃과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적 네트워크가 필요함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음.

(3) 청년 조사

① 조사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마포구에서 활동(거주)하고 있는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청년의 현 상황 및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제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나아가 청년들을 위한 마포구의 정책 개발에 기여하기 위함임.

<표 7-1>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 지역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사 대상	마포구에 활동(거주)하고 있는 청년 세대(19~35세)
표본 크기	30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
조사 시기	2018년 7월 23일 ~ 8월 10일

② 조사 설계

- 마포구 청년조사의 조사 설계는 다음의 <표 7-1>과 같음.
- 조사 지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구역 내이며, 조사 대상은 마포구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청년(19세~35세)임.
 - 표본은 총 300케이스로 사전 회의를 통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활용, 1:1 개별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
 - 조사는 2018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인 (주)유니온 리서치에서 수행하였음.

③ 조사 내용

- 마포구 청년조사의 조사 내용은 다음의 <표 7-2>에 제시되어 있음.
- 마포구 청년들의 거주지역, 연령, 성별, 직업, 주거형태 등 일반 현황을 포함하여 총 6개 영역(경제적 현황, 건강 상태, 여가 및 정보탐색, 생활 전반 및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관심 및 청년정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7-2> 조사 내용

1. 구분	2. 조사 내용
3.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역 ▪ 연령, 성별 ▪ 직업 ▪ 주거형태, 거주공간의 실제 평수 ▪ 부모님과 거주 여부, 경제적 독립 여부,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유
4. 경제적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달 생활비, 생활비 지출순위, 월평균 지출 비율 ▪ 재정상황이 좋아질 경우, 지출할 생활비 항목 ▪ 부채 현황 ▪ 생활비 충당방법 ▪ 경제적 지원 여부 ▪ 경제활동 여부
5. 건강 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여부,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 ▪ 건강 상태, 스트레스 인식 정도 ▪ 스트레스 요인, 해소방법
6. 여가 및 정보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시간에 하는 활동,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 여가활동 횟수, 여가생활이 차지하는 비중 ▪ 인터넷을 통하여 획득하는 정보 분야 ▪ 마포구 소식 인지 여부 및 경로, 접하지 못 한 이유
7. 생활 전반 8. 및 사회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삶의 만족도 ▪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 성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 ▪ 친구 및 지인 현황 및 만족도 ▪ 마포구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정책 분야
9. 지역사회관심 10. 및 청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문제 및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도 ▪ 구정 참여에 가장 필요한 것 ▪ 마포구 미래에 대한 청년의 영향력 ▪ 청년정책 비전수립에 담아야할 단어 ▪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청년정책 분야 ▪ 청년복지를 위해 도입해야할 정책 분야 ▪ 청년 프로그램 참여 경험, 시행했으면 하는 청년 프로그램

④ 응답자 특성 분석

□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의 <표 7-3>에 나타나있음.

- 마포구 거주자는 128명으로 42.7%였고, 타지역에 거주하나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청년은 172명으로 57.3%였음.
- 남성과 여성은 각각 50%였으며, 연령은 19~24세, 25~29세, 30~35세로 구분하였을 때 각 100명씩(33.3%)이었음.
- 조사 응답자 중 직장인이 가장 많았으며(55%) 다음으로 학생(28.3%), 취업준비생(11.7%), 사업자(5%) 순이었음.
- 주거형태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많았으며(43.0%), 오피스텔/원룸 거주자(25.3%), 다세대 및 다가구(18.7%) 순이었음.
- 거주공간 면적으로 30평 이상(34%)이 가장 많았으며, 10평 미만(18.3%)가 가장 적었으며, 응답자의 51.7%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음.

<표 7-3>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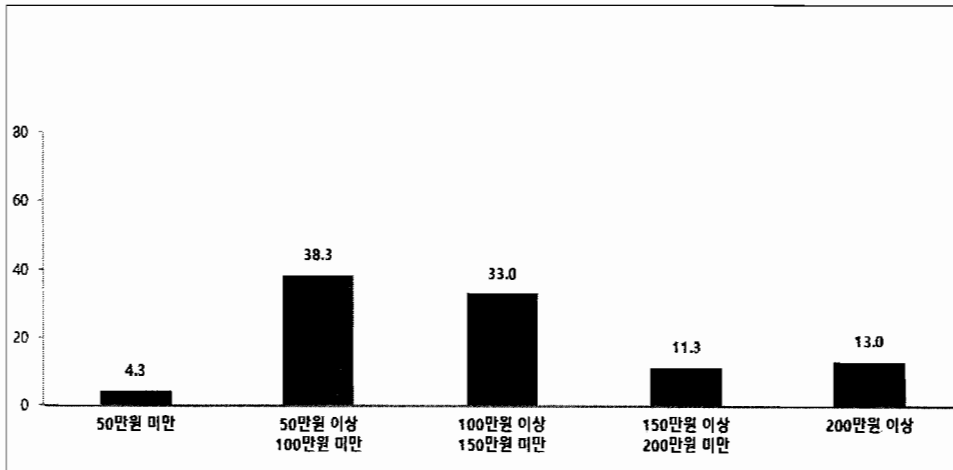
구분		계	
		사례수	구성비(%)
전체		300	100.0
거주지역	마포구	128	42.7
	타지역 거주	172	57.3
성별	남자	150	50.0
	여자	150	50.0
연령	19세~24세	100	33.3
	25세~29세	100	33.3
	30세~35세	100	33.3
직업	학생	85	28.3
	취업준비생	35	11.7
	직장인	165	55.0
	사업자(자영업, 프리랜서)	15	5.0
주거 형태	아파트	129	43.0
	오피스텔, 원룸	76	25.3
	단독주택	24	8.0
	공동체주택	3	1.0
	기숙사	4	1.3
	고시원	8	2.7
	다세대·다가구	56	18.7
거주공간 평수	10평 미만	55	18.3
	10평 이상 20평 미만	69	23.0
	20평 이상 30평 미만	74	24.7
	30평 이상	102	34.0
부모님과 거주 여부	여	145	48.3
	부	155	51.7

⑤ 조사결과

i 경제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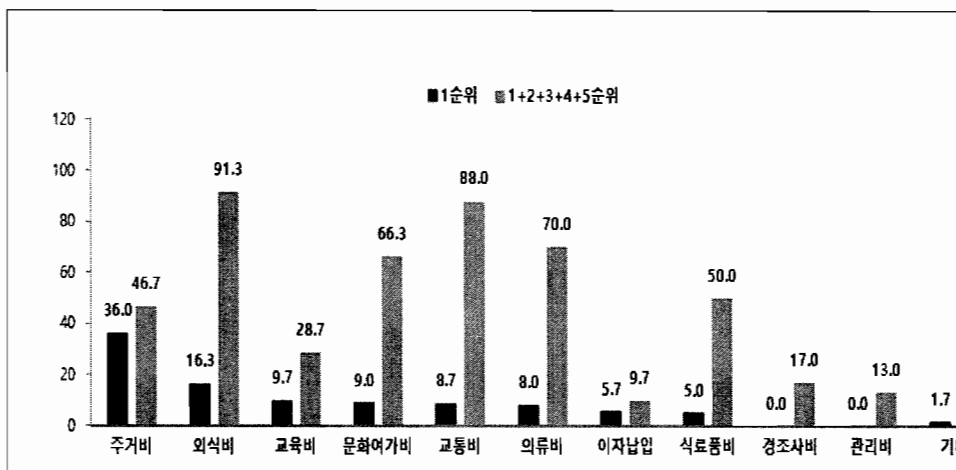
- 월 평균 생활비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8.3%로 많은 반면, 5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이 4.3%로 가장 낮게 나타남.([그림 7-1] 참조)

[그림 7-1] 월평균 생활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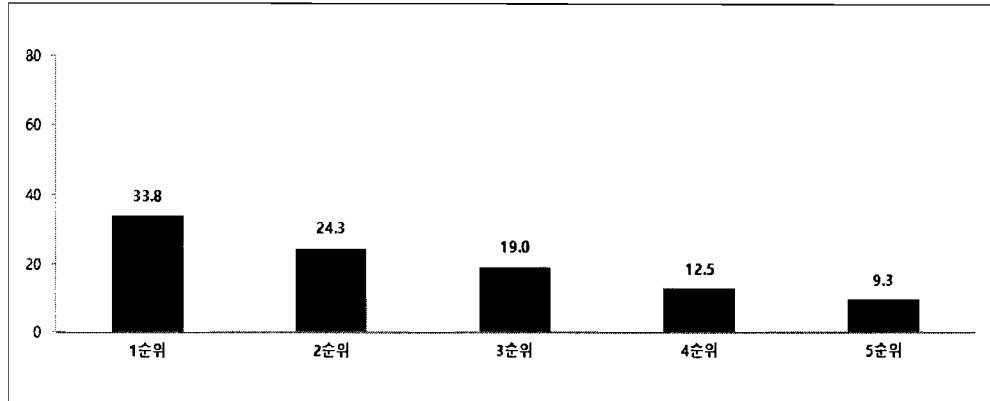
- 생활비 지출을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주거비가 36.0%로 가장 높고, 외식비(16.3%), 교육비(9.7%), 문화여가비(9.0%), 교통비(8.7%) 순으로 나타남.
- 생활비 지출을 1+2+3+4+5순위로 분석한 결과, 외식비가 91.3%로 가장 높고, 교통비(88.0%), 의류비(70.0%), 문화여가비(66.3%), 식료품비(50.0%) 순으로 나타남. ([그림 7-2] 참조)

[그림 7-2] 생활비 지출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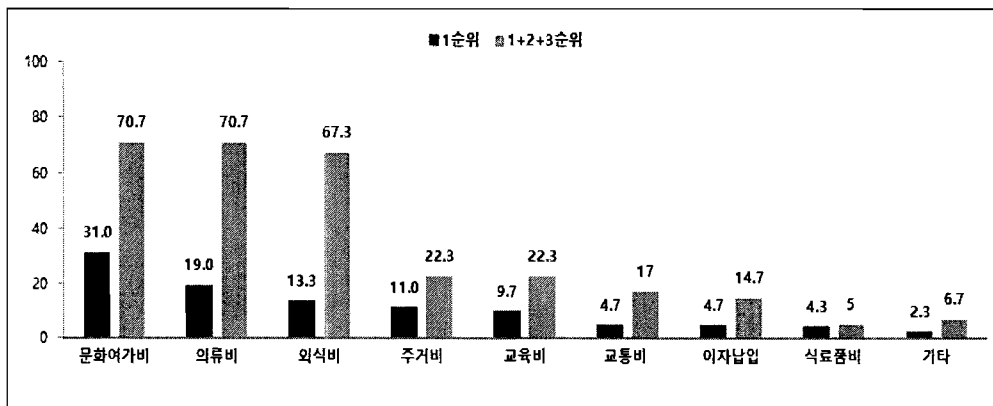
- 생활비 지출비율을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이자납입이 36.5%, 적금이 50.0%로 가장 높음. 생활비 항목 중에서 2순위에서 경조사비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3] 참조)

[그림 7-3] 지출순위 평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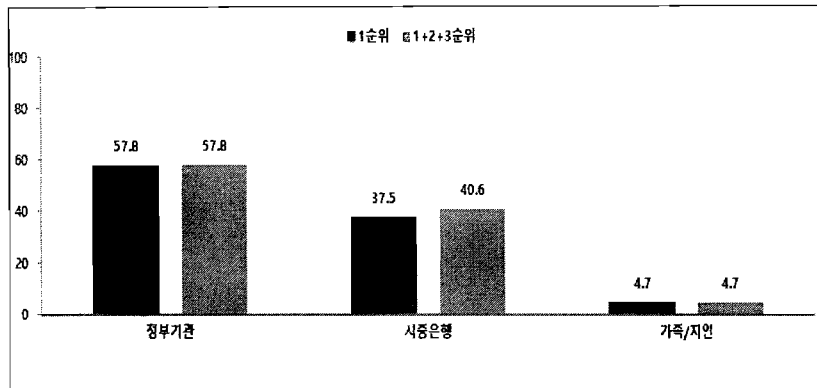
-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경우 늘리고 싶은 지출 항목을 1순위로 분석한 결과, 문화여가비가 31.0%로 높고, 의류비(19.0%), 외식비(13.3%), 주거비(11.0%), 교육비(9.7%) 순으로 나타남.
- 재정상황이 지금보다 좋아질 경우 늘리고 싶은 지출 항목을 1+2+3순위로 분석한 결과, 외식비 및 문화여가비가 각 70.7%로 높고, 의류비(67.3%), 식료품비 및 교육비(각 22.3%) 순임.([그림 7-4] 참조)

[그림 7-4] 재정상황이 나아질 경우 늘리고 싶은 지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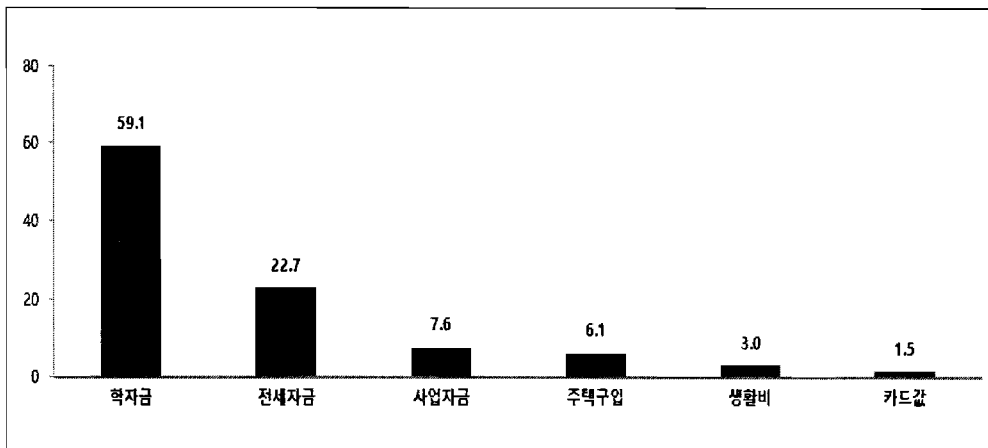
- 부채(빚)가 있는 경우 대출기관 1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기관이 57.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중은행이 37.5%, 가족/지인이 4.7% 순으로 나타남.
- 대출기관 1+2+3순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부기관이 57.8%로 가장 높고, 시중은행이 40.6%, 가족/지인이 4.7% 순으로 나타남.([그림 7-5] 참조)

[그림 7-5] 대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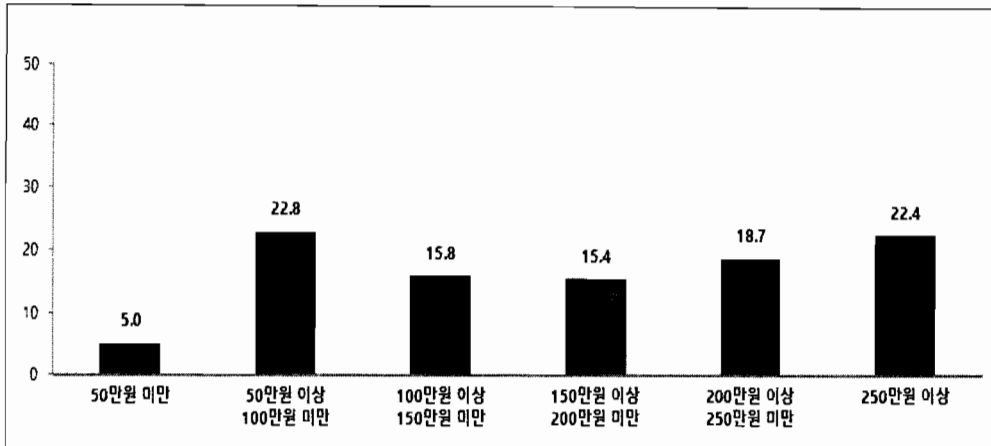
□ 대출사유 대한 조사 결과, 학자금(59.1%)로 높고, 다음으로 전세자금(22.7%), 사업자금(7.6%), 주택구입(6.1%) 순으로 나타남.([그림 7-6] 참조)

[그림 7-6] 대출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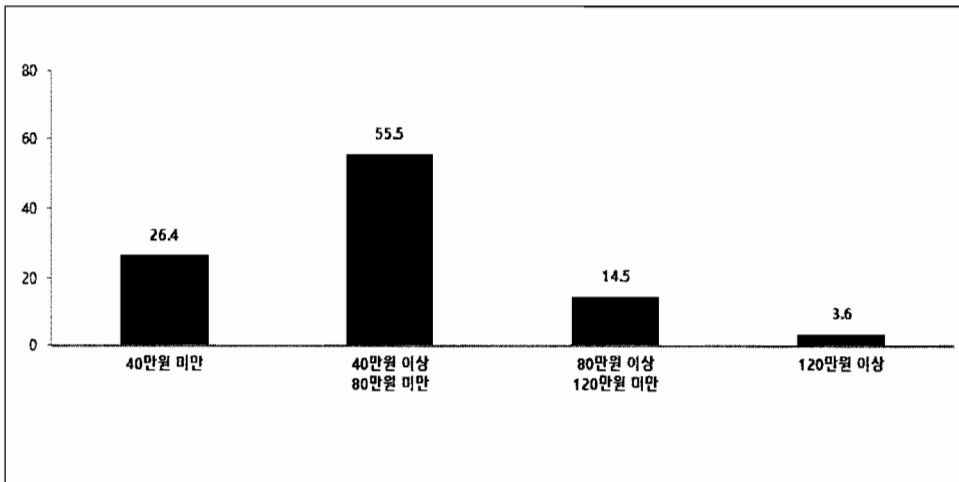
□ 근로소득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22.8%) 및 250만원 이상(22.4%)이 많고, 평균 근로소득은 166만 4천원으로 산출됨.([그림 7-7] 참조)

[그림 7-7] 근로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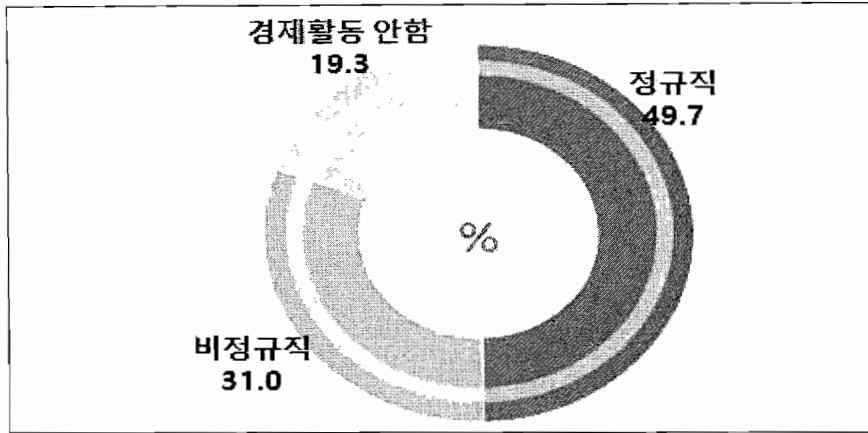
□ 사적이전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 4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5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56만 1천원으로 산출됨. 또한 사적이전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 중 100%가 53.6%로 나타남. ([그림 7-8] 참조)

[그림 7-8] 경제적 지원(사적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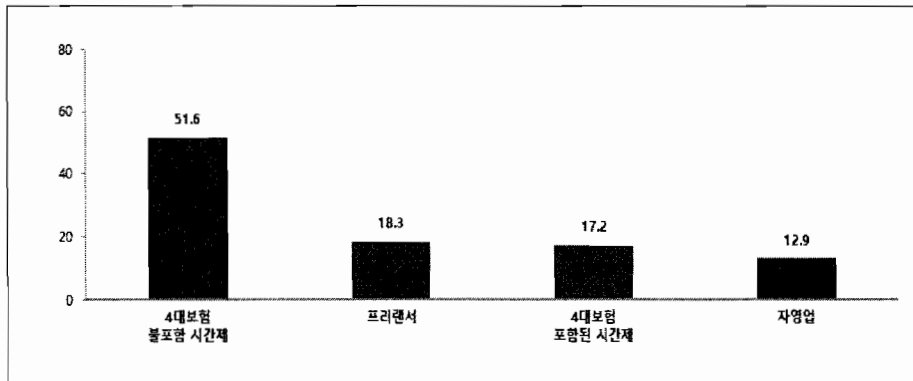
□ 경제활동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정규직으로 경제활동을 한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고, 비정규직(31.0%), 비경제활동(19.3%) 순으로 나타남.([그림 7-9] 참조)

[그림 7-9] 경제활동 여부



□ 비정규적으로 경제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이 불포함 된 시간제'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고, 프리랜서(18.3%), 4대보험 포함 시간제(17.2%), 자영업(12.9%) 순으로 나타남.([그림 7-1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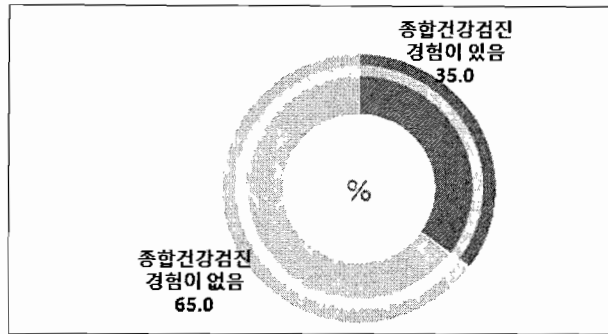
[그림 7-10] 비정규 경제활동 참여도



ii 건강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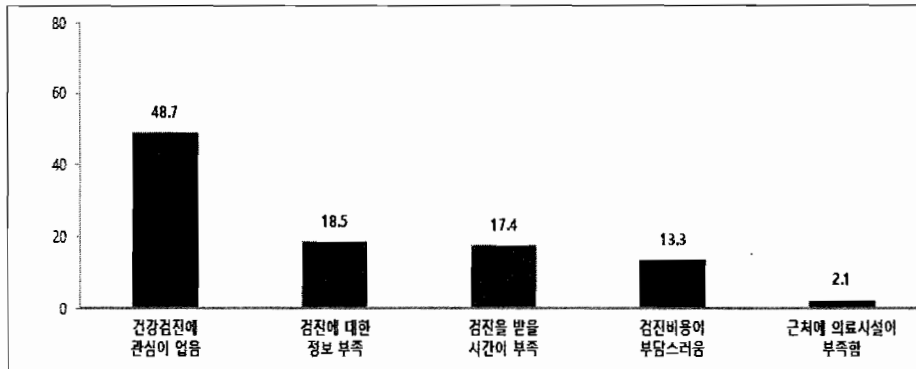
□ 종합건강검진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종합건강검진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5.0%로 나타난 반면, 검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5.0%로 높게 나타남.([그림 7-11] 참조)

[그림 7-11] 종합건강검진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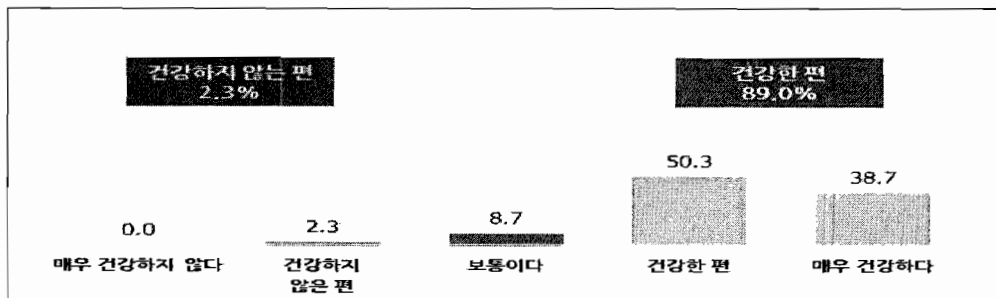
-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건강검진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8.7%로 가장 높고, 검진에 대한 정보 부족(18.5%), 검진을 받을 시간이 부족(17.4%), 검진비용이 부담스러움(13.3%), 근처 의료시설이 부족함(2.1%) 순으로 나타남.([그림 7-12] 참조)

[그림 7-12] 종합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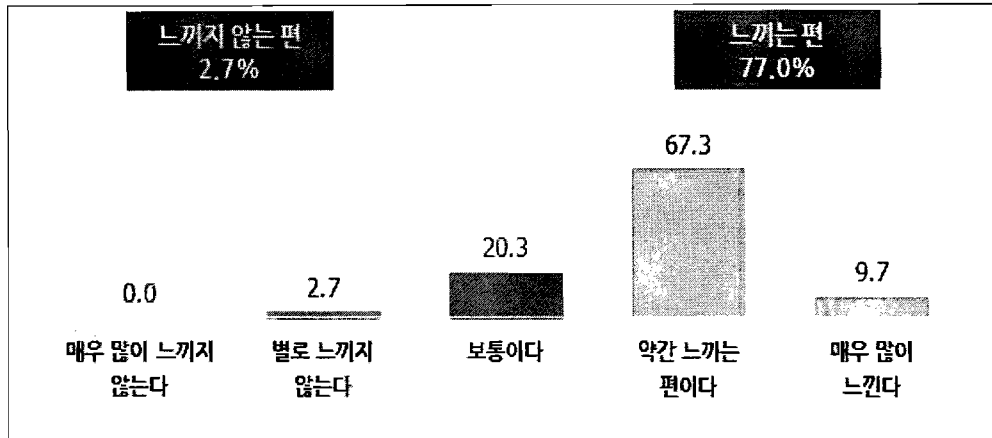
- 본인의 몸 건강 상태에 대해 분석한 결과, 건강한 편이라는 응답이 89.0%로 가장 높고, 보통(2.3%), 건강하지 않음(2.3%) 순으로 나타남.([그림 7-13] 참조)

[그림 7-13] 본인의 건강상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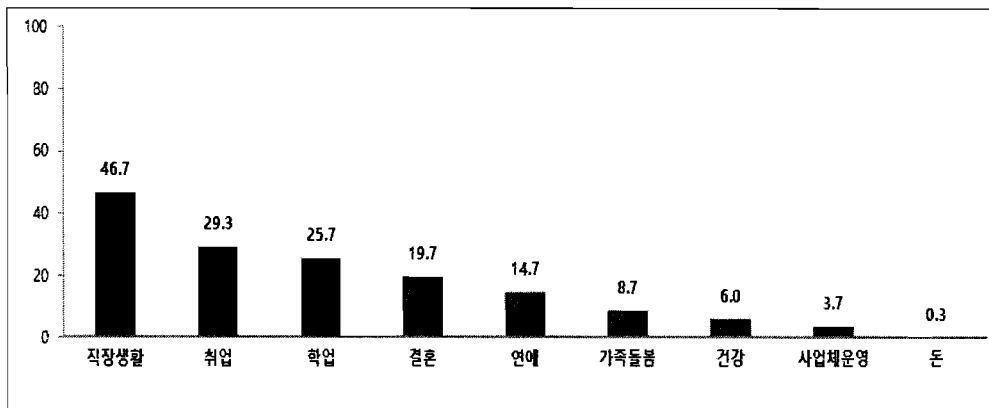
- 스트레스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편이라는 응답이 77.0%로 매우 높고, 보통(20.3%), 느끼지 않음(2.7%) 순으로 나타남.([그림 7-14] 참조)

[그림 7-14] 스트레스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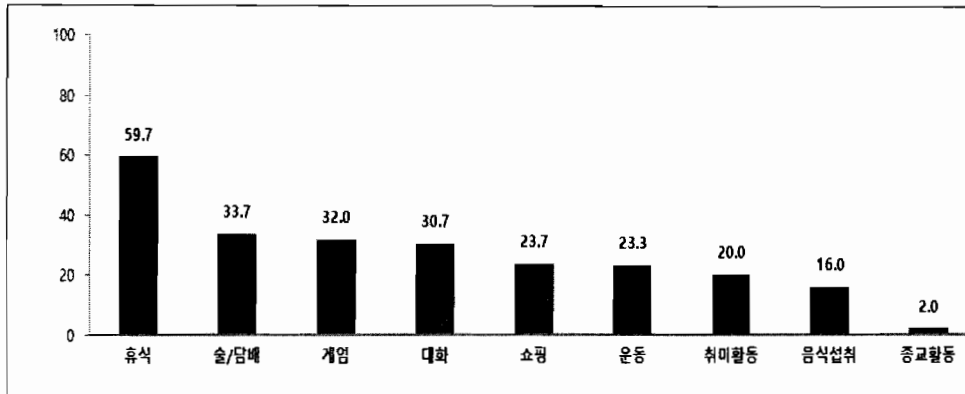
- 주요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장생활이라는 응답이 46.7%로 가장 높고, 취업(29.3%), 학업(25.7%), 결혼(19.7%), 연애(14.7%) 순으로 나타남.([그림 7-15] 참조)

[그림 7-15] 주요 스트레스 요인



-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분석한 결과, 휴식이 59.7%로 가장 높고, 술/담배(33.7%), 게임(32.0%), 대화(30.7%), 쇼핑(23.7%), 운동(23.3%) 순으로 나타남.([그림 7-1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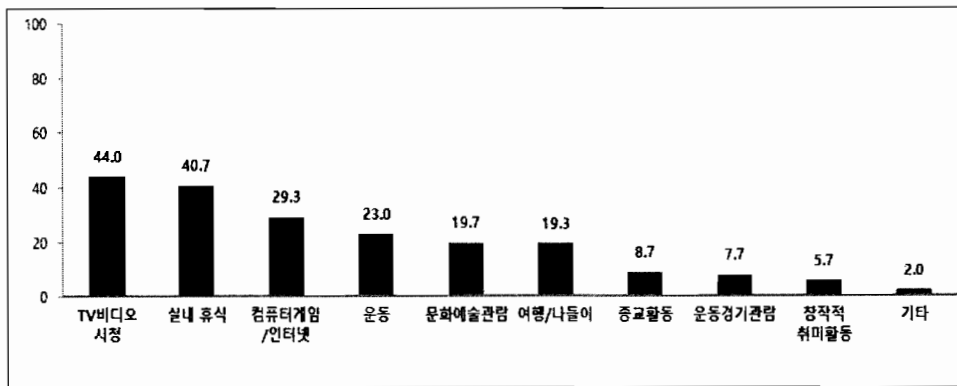
[그림 7-16] 스트레스 해소 방법



iii 여가 및 정보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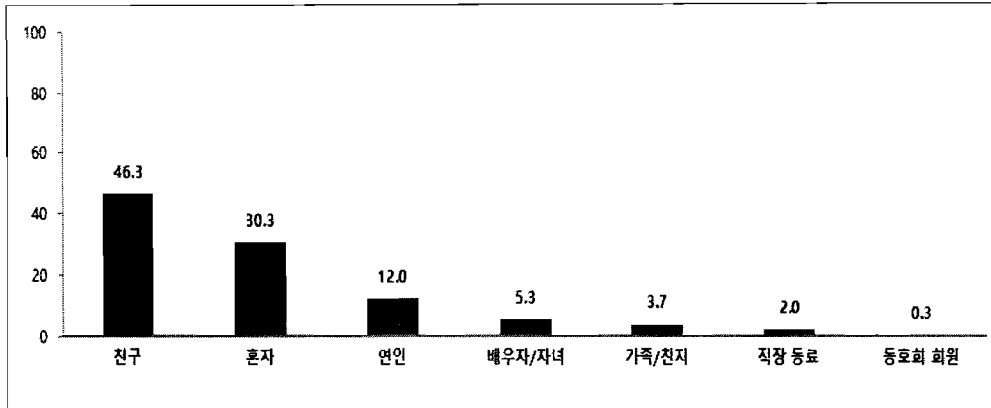
- 여가시간의 주된 활동을 분석한 결과, TV비디오 시청이 44.0%로 가장 높고, 실내 휴식 (40.7%), 컴퓨터게임/인터넷(29.3%), 운동(23.0%), 문화예술관람(19.7%) 순으로 나타남.([그림 7-17] 참조)

[그림 7-17]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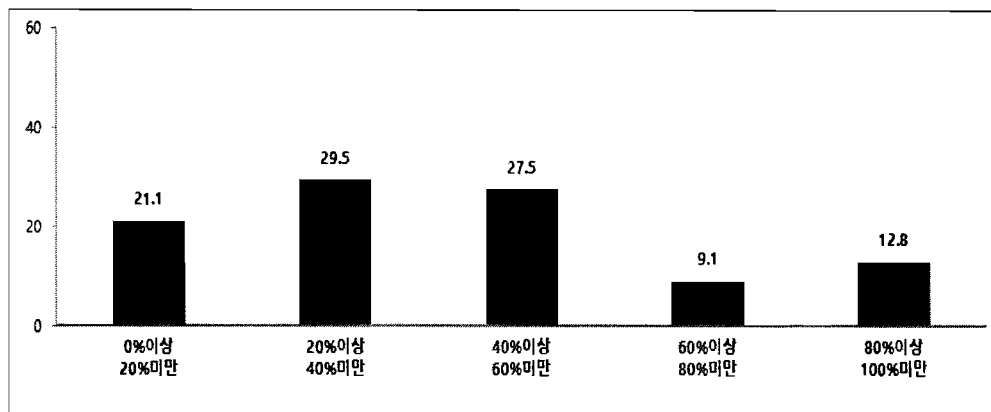
-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을 분석한 결과, 친구가 46.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혼자 (30.3%), 연인(12.0%), 배우자/자녀(5.3%), 가족/친지(3.7%) 순으로 나타남.([그림 7-18] 참조)

[그림 7-18]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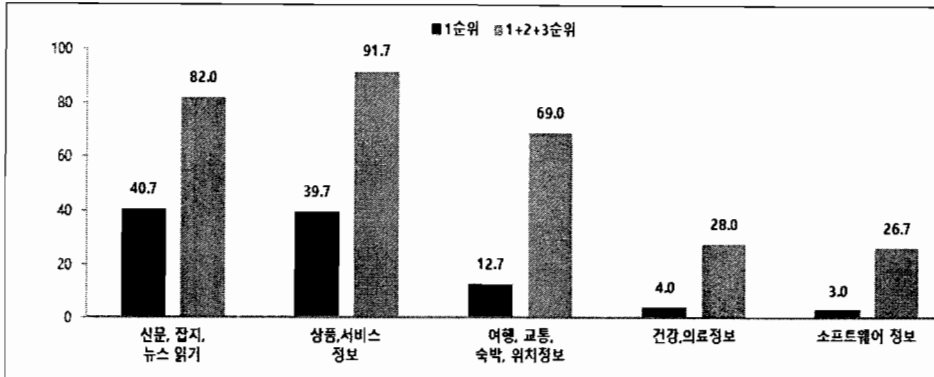
□ 온라인을 통한 여가생활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 20%이상 40%미만이라 응답한 비율이 29.5%로 가장 높고, 40%이상 60%미만(27.5%), 20%미만(21.1%) 순으로 나타남.([그림 7-19] 참조)

[그림 7-19] 온라인 여가활동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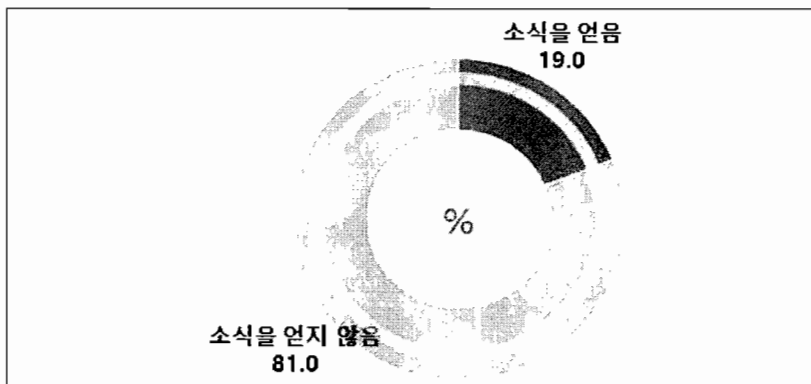
□ 인터넷을 통해 얻는 정보를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신문, 잡지, 뉴스 읽기 및 상품, 서비스 정보가 각 40.7%, 39.7%로 가장 높고, 여행, 교통, 숙박, 위치정보(12.7%), 건강, 의료정보(4.0%), 소프트웨어 정보(3.0%) 순으로 나타남. 1+2+3순위로 분석한 결과, 상품, 서비스 정보가 91.7%로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7-20] 참조)

[그림 7-20] 인터넷을 이용하여 얻는 정보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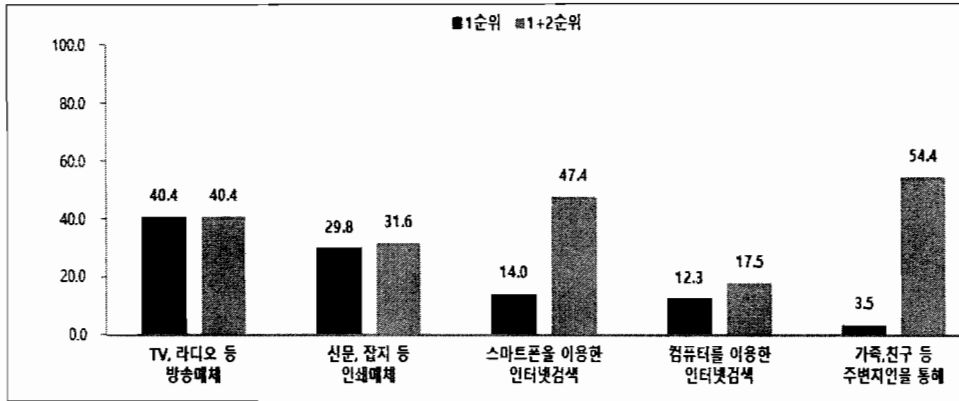
- 마포구 관련 소식을 접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소식을 접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9.0%로 나타난 반면,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1.0%로 매우 높게 나타남.([그림 7-21] 참조)

[그림 7-21] 마포구 관련 소식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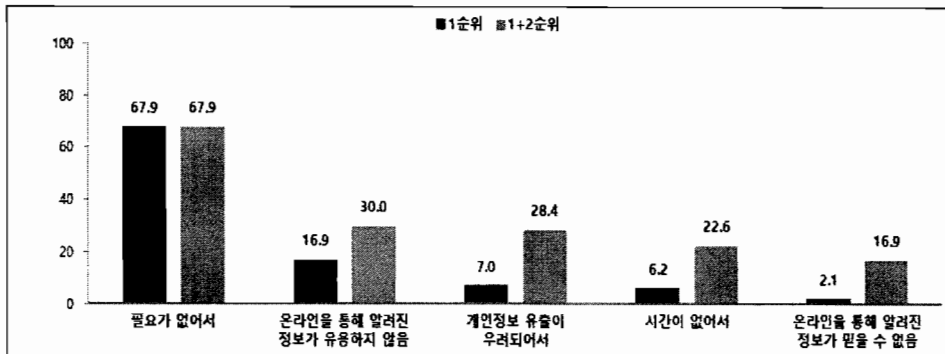
- 마포구 소식을 알게 된 경로를 1순위로 분석한 결과, TV,라디오 등 방송매체가 40.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신문, 잡지 등 인쇄매체(29.8%),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검색(14.0%) 순으로 나타남. 1+2순위로 분석한 결과, 가족, 친구 등 주변지인을 통해 얻었다는 응답이 54.4%로 높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인터넷 검색(47.4%),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40.4%) 순임.([그림 7-22] 참조)

[그림 7-22] 마포구 관련 소식을 알게 되는 경로



□ 소식을 얻지 못 하는 이유를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소식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7.9%로 가장 높게 나타남.([그림 7-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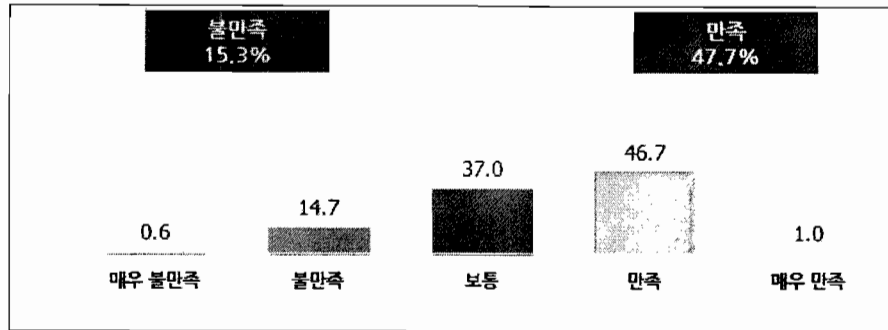
[그림 7-23] 소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



iv 생활 전반 및 사회적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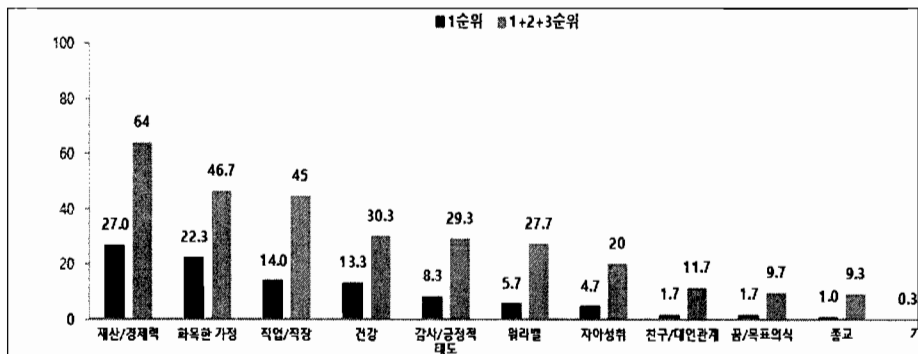
□ 현재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고 응답이 47.7%로 가장 높고 보통(37.0%), 불만족(15.3%) 순이며, 100점 환산 삶에 대한 만족 점수는 58.2점으로 산출됨.([그림 7-24] 참조)

[그림 7-24] 현재 삶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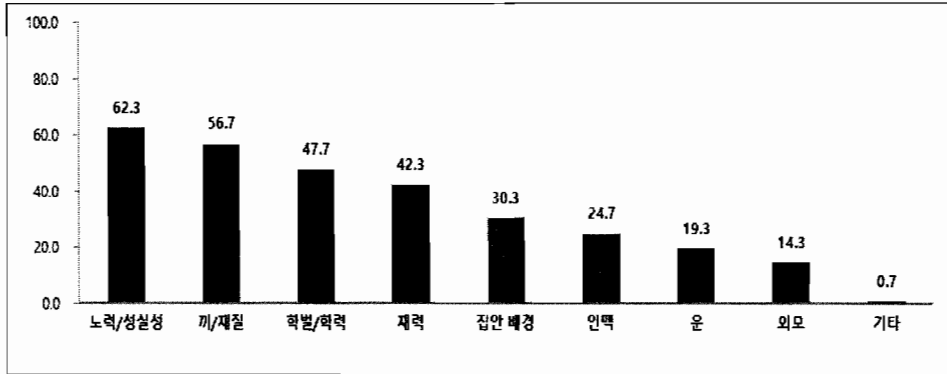
-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을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재산/경제력이 27.0%로 높고, 화목한 가정(22.3%), 직업/직장(14.0%), 건강(13.3%) 순으로 나타남.([그림 7-25] 참조)

[그림 7-25] 행복한 삶의 중요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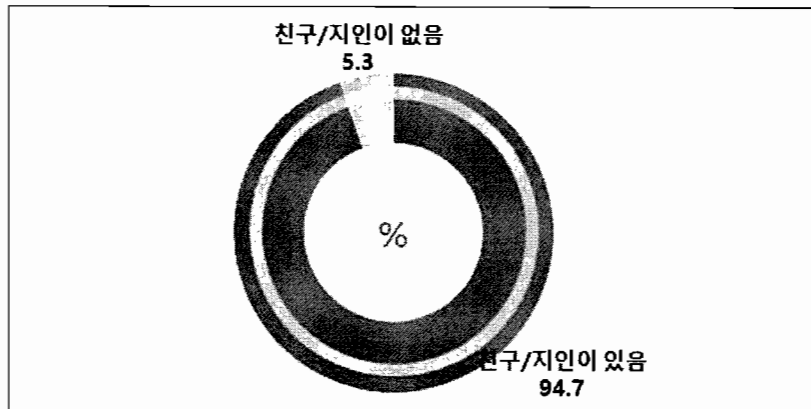
- 성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을 1순위로 분석한 결과, 기/재질이 25.7%로 높고, 노력/성실성(20.7%), 학벌/학력(19.7%), 재력(14.3%) 순으로 나타남. 성공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건을 1+2+3순위 분석한 결과, 노력/성실성이 62.3%로 가장 높고, 기/재질 (56.7%), 학벌/학력(47.7%), 재력(42.3%) 순으로 나타남. ([그림 7-26] 참조)

[그림 7-26] 성공에 필요한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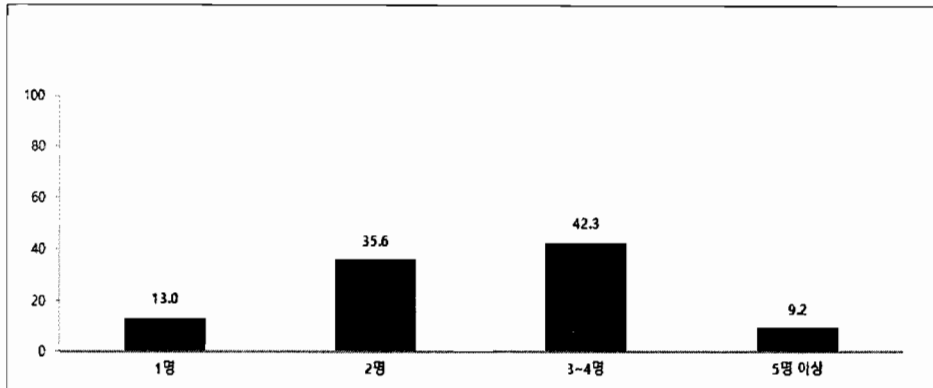
□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의논하거나 상담할 친구가 있다는 응답이 94.7%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7-27] 참조)

[그림 7-27] 의논/상담할 지인(친구)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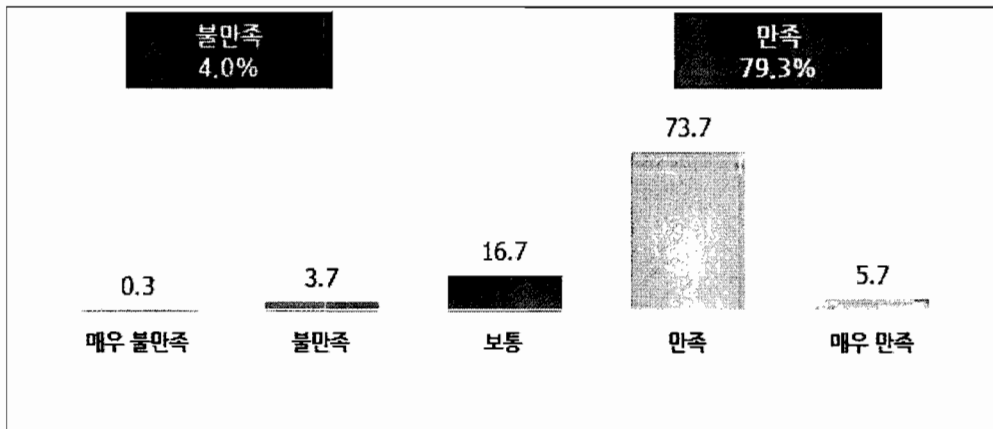
□ 친구/지인의 인원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3~4명이라는 응답이 42.3%로 가장 높고, 20명 (35.6%), 1명(13.0%) 순이며, 평균 친구수는 2.8명으로 산출됨.([그림 7-28] 참조)

[그림 7-28] 지인/친구 인원 수



- 친구/지인 관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79.3%로 매우 높고, 보통(16.7%), 불만족(4.0%) 순으로 나타났으며, 100점 환산 친구/지인 관계에 대한 만족 점수는 70.2점으로 산출됨.([그림 7-29] 참조)

[그림 7-29] 지인/친구 관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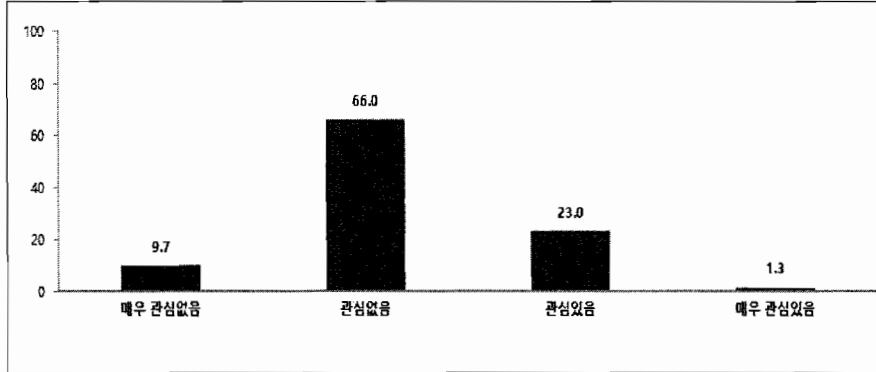


- 마포구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정책으로 주로 동아리 지원이 언급되었으며, 다음으로 강연 개최, 활동 공간 확충, 취업활동 및 학비 지원, 문화 공간 및 쉼터 마련 의견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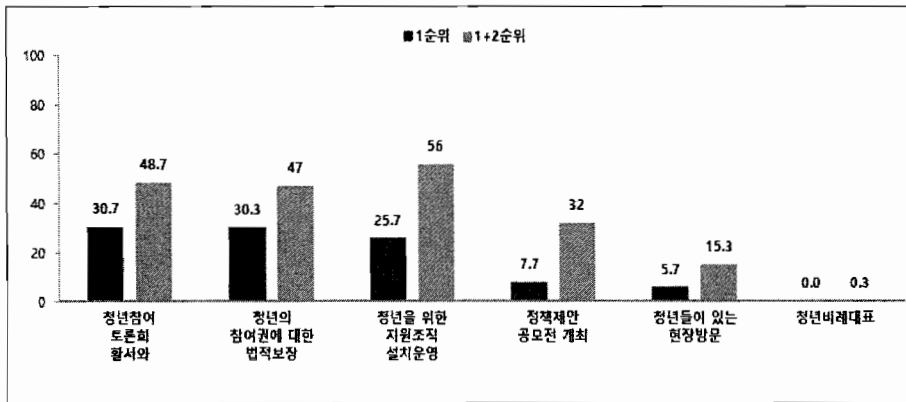
v 지역사회관심 / 청년정책

- 마포구 지역사회문제/정치참여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관심 없다는 응답이 7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7-30] 참조)

[그림 7-30] 마포구 지역사회관심도



[그림 7-31] 마포구 구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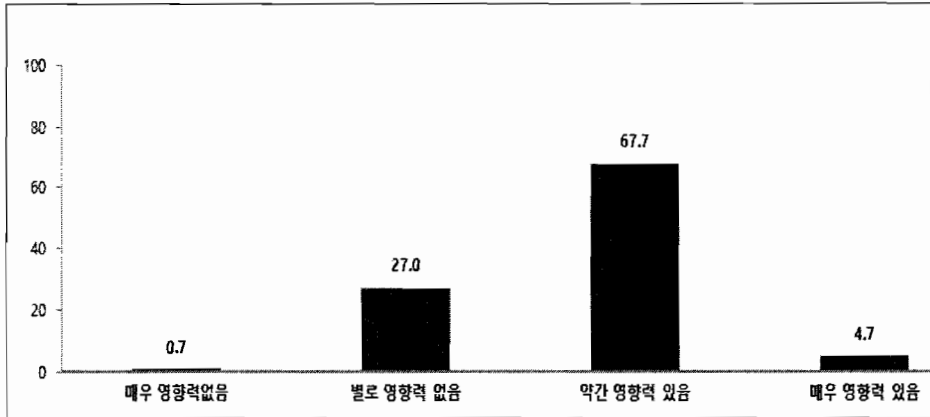


□ 마포구 구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청년참여 토론회 활성화 및 청년의 참여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각 30.7%, 30.3%로 높고, 청년을 위한 지원조직 설치운영 (25.7%) 순임. 1+2+3순위로 분석한 결과, 청년을 위한 지원조직 설치운영이 56.0%로 높고, 청년참여 토론회 활성화(48.7%), 청년의 참여권에 대한 법적보장(47.0%),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32.0%) 순임.([그림 7-3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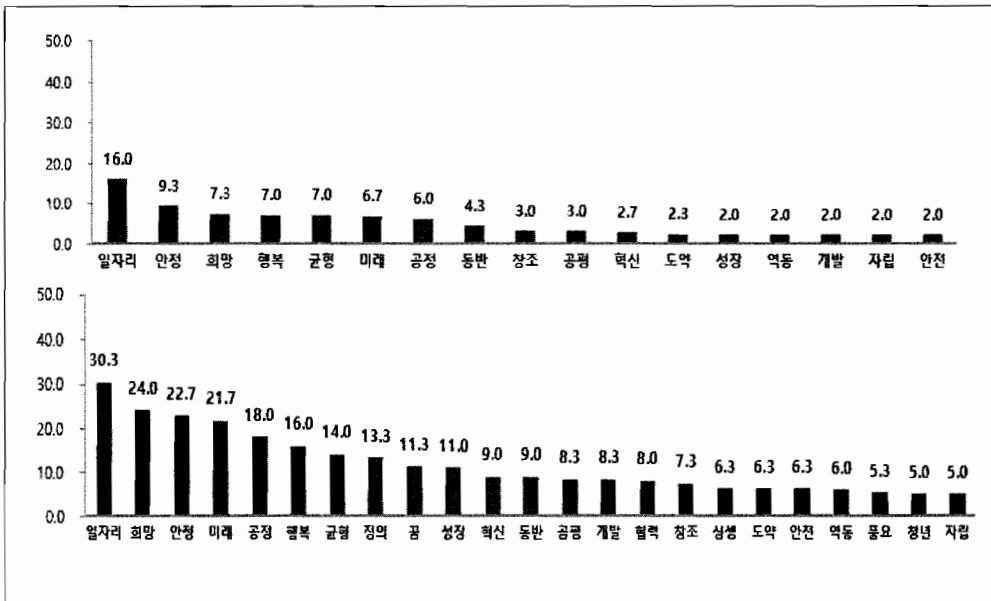
□ 마포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청년의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이 72.3%로 높게 나타남.([그림 7-32] 참조)

□ 마포구 청년정책 비전수립에 반드시 담아야할 단어를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일자리가 16.0%로 높고, 안정(9.3%), 희망(7.3%), 행복(7.0%), 균형(7.0%), 미래(6.7%), 공정(6.0%) 순임.([그림 7-33] 참조)

[그림 7-32] 마포구 미래에 대한 청년의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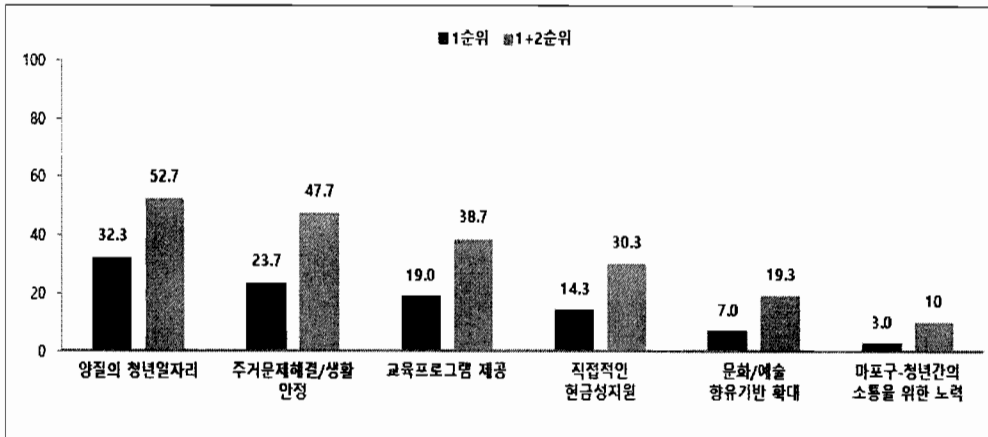


[그림 7-33] 청년정책 비전수립에 들어가야 할 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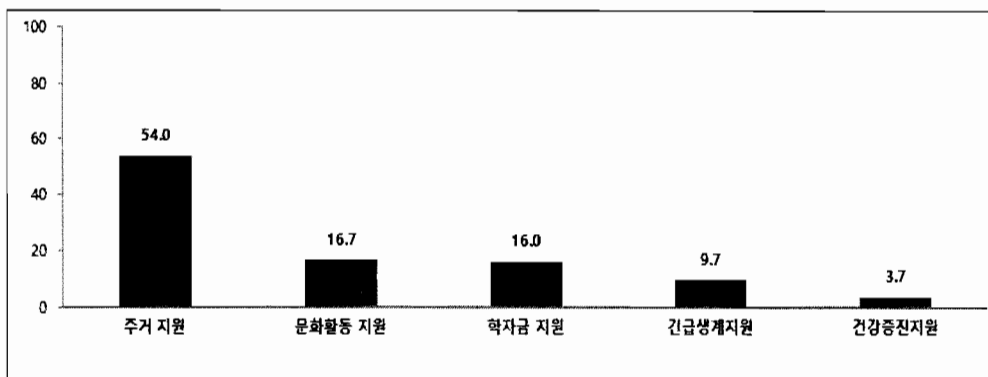
□ 마포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청년정책 분야를 1순위로 분석한 결과, 양질의 청년일자리가 32.3%로 높고, 주거문제 해결 및 생활안정(23.7%), 교육프로그램 제공(19.0%) 순임.([그림 7-34] 참조)

[그림 7-34]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청년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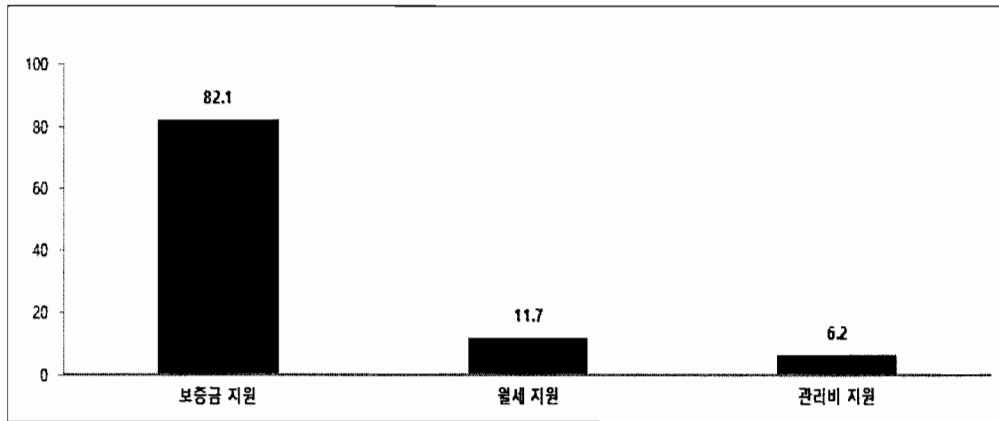
- 청년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정책을 분석한 결과, 주거지원이 54.0%로 가장 높고, 문화활동 지원(16.7%), 학자금 지원(16.0%), 긴급생계지원(9.7%), 건강증진지원(3.7%) 순으로 나타남. ([그림 7-35] 참조)

[그림 7-35] 도입하여야 하는 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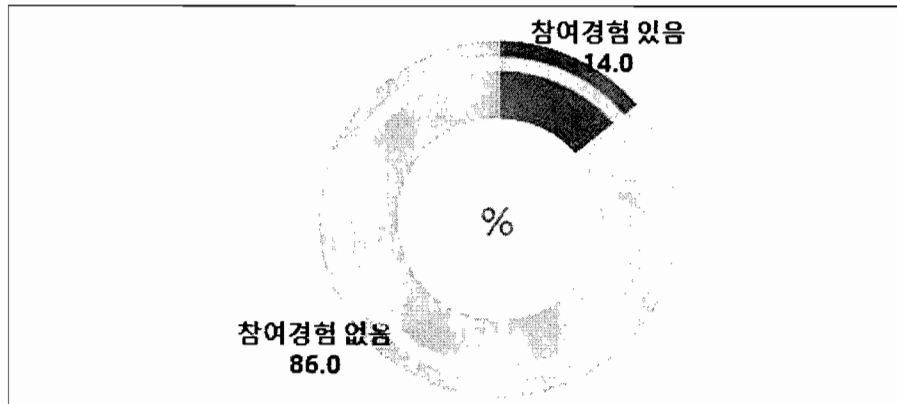
- 주거지원을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정책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고, 월세 지원(11.7%), 관리비 지원(6.2%) 순으로 나타남.([그림 7-36] 참조)

[그림 7-36] 도입하여야 하는 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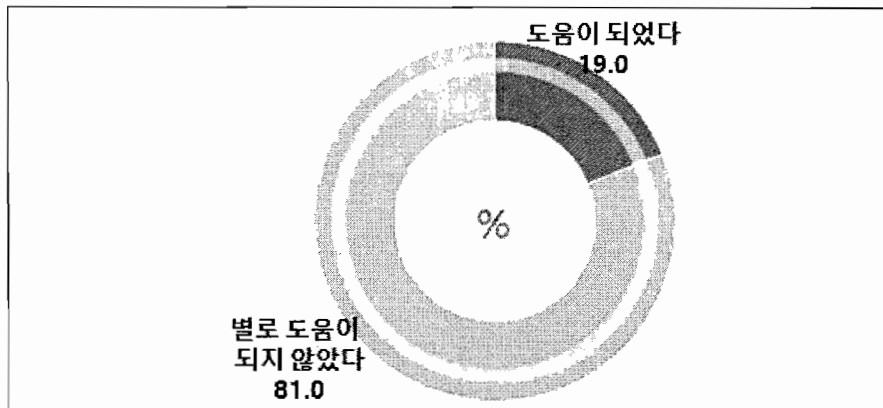
-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14.0%인 반면,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6.0%로 매우 높게 나타남.([그림 7-37] 참조)

[그림 7-37]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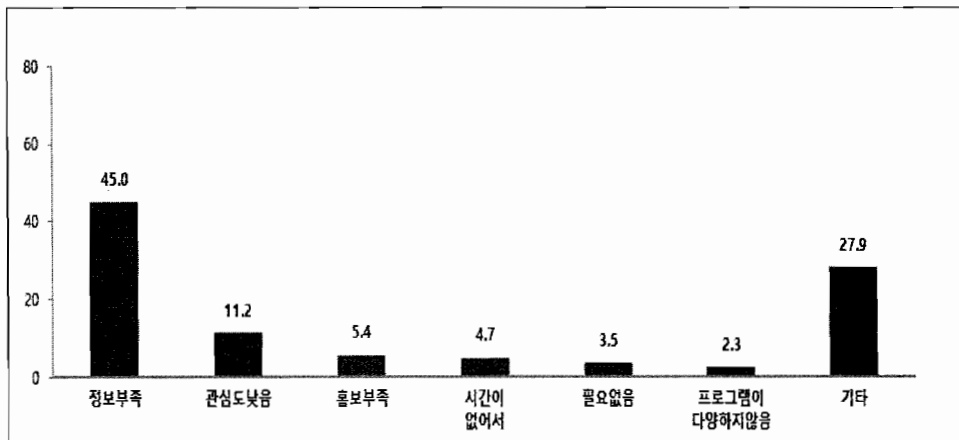
-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참여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0%로 나타난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81.0%로 매우 높게 나타남.([그림 7-38] 참조)

[그림 7-38] 프로그램 만족도



□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정보부족이 45.0%로 가장 많고, 관심도 낮음(11.2%), 홍보 부족(5.4%), 시간 없음(4.7%) 순으로 나타남.([그림 7-39] 참조)

[그림 7-39]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없는 이유



□ 마포구에서 시행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으로 창업자금지원, 취업설명회 개최, 문화활동,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으로 나타남.

⑤ 청년조사 분석 결과

□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년 및 마포구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청년들에 대한 삶의 실태와 인식, 정책적 수요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음.

□ 청년들의 경제적 상황을 살펴본 결과,

-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았고 외식비의 지출 수준도 높았음.
- 재정상황이 나아질 경우에 문화여가비 지출과 의류비 지출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외식비 지출 순이었음.
- 부채는 정부기관에 대한 부채가 가장 높았으며, 대출에 대한 사유는 학자금에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세자금이었음.
- 근로소득의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소득구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22.8%), '2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2.4%였음.
- 사적이전을 통한 경제적 지원은 평균 56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적이전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하는 비율은 53.6% 정도였음.

□ 청년들의 건강 상태를 살펴본 결과,

- 종합건강검진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65%였으며, 이는 종합건강검진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48.7%) 것으로 나타났음.
- 본인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건강한 편'이라는 인식이 89%에 달하였으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77%로 높게 나타났음.
- 스트레스 관련 주요 요인은 직장생활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및 학업 순이었음.
- 스트레스 해소는 휴식(59.7%)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술/담배(33.7%), 게임(32%)의 비율도 높은 편이었음.

□ 청년들의 여가 및 정보검색 활동을 살펴본 결과,

- 여가시간에는 주로 TV시청(44%), 실내휴식(40.7%), 컴퓨터게임/인터넷(29.3%)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가활동은 친구와 가장 많이 하며(46.3%), 혼자한다는(30.3%) 응답도 높았음.
-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검색(40.7%)을 많이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 정보 획득(39.7%)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마포구에 대한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8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소식을 얻지 못하는 이유로는 '소식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67.9%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들의 생활 전반 및 사회적 관계를 살펴본 결과,
 -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47.7%), 불만족(15.3%)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았음.
 - 응답자들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재산이나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건(27%)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화목한 가정(22.3%), 직업/직장(14%) 순이었음.
 - 성공을 위하여 '끼/재질'이 가장 필수적이라는 응답(25.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노력/성실성'(20.7%), '학벌/학력'(19.7%), '재력'(14.3%) 순이었음.
 - 조사 대상자들은 사회적 관계 발전을 위하여 마포구에서 동아리 지원, 강연 개최, 활동공간 확충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청년들의 지역사회관심 및 청년정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 마포구의 지역사회문제나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75.7%였음.
 - 마포구 구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청년을 위한 지원조직 설치운영'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참여 토론회 활성화'(48.7%), '청년의 참여권에 대한 법적보장'(47%) 순이었음.
 - 청년정책 비전수립시 들어가야 할 단어로 '일자리'(16%), '안정'(9.3%), '희망'(7.3%)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청년정책 분야 역시 '양질의 청년 일자리'(32.3%)였음. 다음으로는 '주거문제 해결 및 생활안정'(23.7%)인 것으로 나타났음.
 - 청년복지를 위해서 주거지원 정책이 가장 높았고(54%), 문화활동 지원(16.7%), 학자금 지원(16%) 순으로 나타났음. 보다 구체적으로, 주거지원은 '보증금 지원'(82.1%)이 가장 높았음.
 - 한편, 청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고(86%), 참여한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81%)이 높았음.

□ 마포구 청년조사 결과,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이 가진 핵심적인 욕구인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가 동일하게 적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자리와 주거의 문제는 비단 청년세대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에 직결되는 요인임을 미루어볼 때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마포구의 경우 문화적, 지리적 측면에서 청년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싶은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하게 표출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적절한 주거지원 정책을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할 경우에 그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 관계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율이 높았으나, 직장생활이나 취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도 동시에 높았음. 스트레스 해소나 여가에 있어서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청년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한 방향이 될 것임.

□ 마지막으로, 청년들이 마포구의 정책대상이자 정책제안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겠음.

(4) 사회복지자원 조사

①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자원조사는 마포구 소재 사회복지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각종 법인 중 조사에 응답한 50개소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 조사방법

- 이메일 및 구글(Google) 설문을 통한 설문조사방법을 활용하였음.

㉢ 조사의 내용

〈표 4-1〉 조사의 내용

구분	내용	문항수
기관 일반사항	이용(생활)자수/수급자수/직원수/기관운영형태/재정상황	4
연계협력	연계협력여부/관계의 강도/연계내용/연계방향	4
연계협력 관련의견	연계협력에 대한 일반적 인식/연계협력관련 개선내용/정보획득방법/기관의 연계협력지원정도/서비스중복제거방법/향후 연계활동참여정도/향후 필요한 연계활동/마포구청과의 연계활동/마포구청지원의 필요성	9

㉣ 분석방법

- 기관의 일반적 상황 및 연계협력관련 의견의 기술통계분석을 위해 SPSS 22.0을 이용하였음.

② 조사결과

㉠ 일반 사항

□ 기관의 유형

- 조사에 참여한 총 50개소의 사회복지 관련기관 중 이용시설은 32개소, 생활시설은 13개소였으며 법인 2개소, 기타 시설 3개소였음.

<표 4-2> 기관의 유형

유형(N=50)	이용시설	생활시설	법인	기타
빈도(개소)	32	13	2	3
비율(%)	64	26	4	6

- 지원 대상을 중심으로 기관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노인복지기관과 장애인기관이 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가족기관이 7개소로 두 번째로 많았음.

<표 4-3> 기관의 세부유형

유형(N=50)	빈도(개소)	유형(N=50)	빈도(개소)
노인	13	여성가족	7
장애인	13	정신보건	2
청소년	3	종합사회복지관	2
영유아	2	법인	1
아동	5	기타	2

□ 이용시설의 이용자 수

- 이용시설별 월이용 실인원수를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음. 월 이용자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이나 아예 5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기관들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음. 100명~500명 사이로 이용하는 중형 기관들은 많지 않았음

〈표 4-4〉 이용시설 분야별 이용자수

인원범주	분야									
	1	2	3	4	5	6	7	8	10	합계
100이하	5	5	-	-	2	1	1	-	-	14
101이상 300이하	-	-	-	-	-	-	1	-	-	1
301이상 500이하	1	-	-	-	-	-	-	-	-	1
501이상 1000이하	-	1	-	-	1	-	-	1	1	4
1000 초과	4	2	1	2	1	1	-	1	1	13
합계	10	8	1	2	4	2	2	2	2	33

주 : 1=노인, 2=장애인, 3=정소년, 4=영유아, 5=아동, 6=여성가족, 7=정신보건, 8=종합 사회복지관, 9=법인, 10=기타

□ 생활시설의 생활자 수

- 조사참여 생활시설의 정원 및 생활자 수, 그리고 생활자 수 중 수급자 수 비율을 기관의 세부유형별로 살펴보았음. 먼저 노인생활시설은 전체 정원 42명 중 42명이 생활하고 있었고(100%), 이 중 수급자는 5명이었음(12%). 장애인생활시설은 정원 79명 중 64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81%), 이 중 수급자는 33명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었음. 아동생활시설은 전체 정원 70명 중 70명이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 중 수급자는 70명 모두였음(100%). 여성가족생활시설은 전체 정원 62명 중 46명이 생활하고 있었고(74%), 이 중 수급자는 39명이었음(85%). 이 수치들은 다음의 [표 5]에 정리되어 있음.

〈표 4-5〉 생활시설 정원 및 생활자 수

현황	기관유형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가족
정원(명)	42	79	70	62
현재 생활자 수(명)	42	64	70	46
정원대비 생활자 수 비율(%)	100	81	100	74
수급자 수(명)	5	33	70	39
생활자수 대비 수급자비율(%)	12	52	100	85

□ 기관종사자 현황

- 조사참여 기관들의 전체 직원 수는 781명이었음. 이중 정규직원은 592명으로 75.8%를 차지하고 있었고 기관 당 평균 8.4명의 정규직원이 종사하고 있었음.
- 정규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352명이 있었고, 총 직원 대비 45.1% 정도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표 4-6> 기관종사자 현황

N=50	정규직 수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 (정규직 중)	총 직원수
합계(명)	592	352	781
기관당 평균(명)	8.4	7.0	15.6
총 직원 대비 비율(%)	75.8	45.1	-

- 조사 참여 기관들을 지원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정규직 및 자격증 비율을 살펴보았음. 법인에 소속된 정규직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고, 여성가족이 70.8%로 가장 낮았음. 자격증 보유비율의 경우 영유아영역이 87.5%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 영역의 자격증 보유비율이 22.8%로 가장 낮았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7> 정규직 및 자격증 비율

유형	정규직 (%)	자격증 (%)	유형	정규직 (%)	자격증 (%)
노인	53.2	29	여성가족	70.8	59.7
장애인	91	66.9	정신보건	75.9	68.9
청소년	85.7	22.8	종합사회복지관	-	-
영유아	87.5	87.5	법인	100	80
아동	85.7	28.1	기타	-	-

□ 기관의 운영형태

- 조사참여 기관들의 운영형태로는 정부위탁이 24개소(48%)로 가장 많았고 법인직영이 16개소(32%), 개인이 5개소(10%)였으며 기타가 5개소(10%)였음.

〈표 4-8〉 기관의 운영형태

운영형태	법인직영	정부위탁	개인	기타
빈도(개소)	16	24	5	5
비율(%)	32	48	10	10

□ 재정상황

- 조사에 참여한 기관들이 전체예산 중 정부보조금 지원비율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정부보조금 지원 비율의 평균은 56.1%(SD=31.2)였음.

〈표 4-9〉 정부보조금 지원비율

N=50	1	2	3	4	5	6	7	8	9	10
지원받지 않음	1	1	1	-	-	1	-	-	-	-
20%이하	2	-	-	-	1	-	-	-	-	-
21~40%	1	3	-	-	1	-	-	-	1	-
41~60%	-	4	1	2	-	-	-	-	-	-
61~80%	5	3	1	-	1	3	1	2	-	1
81% 이상	4	2	-	-	2	3	1	-	-	1

주 : 1=노인, 2=장애인, 3=청소년, 4=영유아, 5=아동, 6=여성가족, 7=정신보건, 8=종합 사회복지관, 9=법인, 10=기타

- 조사참여 기관들의 후원금 액수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0> 후원금액수

N=49 단위:만원	1	2	3	4	5	6	7	8	9	10
없음	2	-	2	-	-	1	-	-	-	-
1,000 미만	5	6	-	-	1	2	-	-	-	-
1,000 이상 ~ 2,000 미만	-	2	-	-	1	2	1	-	-	-
2,000 이상 ~ 4,000 미만	-	4	-	-	1	1	-	-	-	1
4,000 이상 ~ 8,000 미만	5	-	1	-	-	1	-	-	-	-
8,000 이상 ~ 15,000 미만	-	1	-	2	-	-	-	1	-	-
15,000 이상	1	-	-	-	2	-	1	1	1	-

주 : 1=노인, 2=장애인, 3=청소년, 4=영유아, 5=아동, 6=여성가족, 7=정신보건, 8=종합
사회복지관, 9=법인, 10=기타

㊤ 연계협력활동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동에 대한 의견

-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어느 정도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고 응답한 기관이 24개소(48%)로 가장 많았음.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고 응답한 기관 또한 5개소(10%)가 있었음. 따라서 총 50개 기관 중 58%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이 그동안의 연계협력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1>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활동에 대한 인식

항목	빈도(N=50)	비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매우 많다	5	10
어느정도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	24	48
보통이다	19	38
개선될 내용이 없는 편이다	2	4
전혀 개선될 내용이 없다	-	-

□ 타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

-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활동과정 중 개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과다한 업무량’ 이 21건(4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연계활동에 대한 관심부족과 타기관에 대한 정보부족이 뒤를 이었음.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2〉 연계협력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

차원	항목	빈도(N=50)	비율(%)
개인적 차 원	과다한 업무량	21	42.0
	개인적 역량부족	2	4.0
	담당자의 이직으로 인한 단절	7	14.0
	연계활동에 대한 관심부족	14	28.0
	타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6	12.0
조직적 차 원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18	36.0
	조직에의 도움정도가 낮음	8	16.0
	상급자의 인식부족	0	0
	예산부족	10	20.0
	물적자원부족	2	4.0
기타	12	24.0	
단체간 차 원	타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1	2.0
	공식적인 모임의 부재	10	20.0
	주도적 단체의 부재	14	28.0
	기관별 이념의 차이	13	26.0
	의견조정의 어려움	5	10.0
기타	7	14.0	
기 타	다수의 중복프로그램	8	16.0
	연계사업의 종결	0	0
	적절한 연계사업 부재	22	44.0
	외부예산지원체계 미흡	5	10.0
	실적위주의 평가제도	14	28.0
기타	1	2.0	

□ 연계협력에 대한 정보획득방법

〈표 4-13〉 연계협력관련 정보획득방법 (다중응답)

방법	빈도 (N=130)	비율(%)	방법	빈도 (N=130)	비율
전화	35	26.9	홈페이지검색	22	16.9
SNS	10	7.7	홍보소식지	15	11.5
공문서	31	23.8	공동업무 전산프로그램	4	3.1
교육 및 연수	7	5.4	기타	4	3.1
문헌자료 및 보고서	2	1.5			

-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과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를 주로 획득하는 방법으로는 전화가 35건 (26.9%)으로 가장 많았고, 공문서가 31건(23.8%)로 두 번째 순서로 조사되었음. 보다 상세한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 연계 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

-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정도관련 질문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은 ‘기관 연계활동 회의에 대하여 직원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허락하여야 한다’ (평균 4.18)이었고, 가장 낮게 측정된 것은 ‘연계활동에서 기관의 직원이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부분’ 이었음 (평균 3.78).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4>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

번호	항목(N=50)	평균	표준 편차
1	기관연계활동에 필요한 회비나 회의비를 기관 공식예산에서 지원해야 한다	4.04	.78
2	기관연계활동에 대해 모임 또는 회의 장소를 적극적으로 대여해야 한다	4.04	.60
3	기관연계활동 회의에 대하여 직원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허락해야 한다	4.18	.59
4	기관연계활동에서 부여된 업무를 직원이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4.00	.63
5	기관연계활동에서 직원이 리더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토록 해야 한다.	3.78	.67

□ 서비스 중복 및 누락방지 방안

-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공유와 정보교환으로 32건 (21.5%)이 조사되었음. 두 번째로는 정보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 표준화 도모가 26건 (17.4%)으로 나타났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5> 서비스 중복 및 누락방지 방안 (다중응답)

번호	항목	빈도 (N=149)	비율 (%)
1	담당 실무자가 서비스 제공 등의 연계활동에 실질적인 통제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함	20	13.4
2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공유와 정보교환을 통해 서비스의 중복을 방지함	32	21.5
3	연계사업을 위한 사업계획, 예산배분 및 조정 등의 정기적인 협의모임을 개최함	23	15.4
4	정보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 표준화를 도모함	26	17.4
5	지역사회 문제 및 욕구에 대한 공동조사 및 사업평가 활동을 실시함	15	10.1
6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함	9	6.0
7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이 필요	24	16.1

□ 연계활동의 수준

<표 4-16> 연계활동의 수준 (N=50)

번호	항목	빈도	비율 (%)
1	사전교육, 정보제공 수준에서는 참여하겠음	6	12
2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중 일부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음	4	8
3	연계활동을 담당할 인력이 지원된다면 참여하겠음	16	32
4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및 인력 전체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음	14	28
5	조건과 상관없이 타 기관 연계활동에 참여하겠음	9	18

-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수준관련 질문에서는 연계활동을 담당할 인력이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16건(32%)으로 가장 높았고,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및 인력 전체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응답 또한 14건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반해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중 일부가 지원된다는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건(8%)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 향후 필요한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 향후 필요한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으로는 서비스 대상자 의뢰 및 관리와 지역사회 통합정

보 프로그램 개발이 29건(19.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 교환이 28건(18.9%)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7〉 향후 필요한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 (다중응답)

번호	항목	빈도 (N=148)	비율 (%)
1	서비스 대상자 의뢰 및 관리	29	19.6
2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	28	18.9
3	사업 공동계획 및 실시	14	9.5
4	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자원 개발, 관리	18	12.2
5	지역사회 통합정보 프로그램 개발	29	19.6
6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9	6.1
7	직원 교육 및 연수	21	14.2

□ 마포구청과의 희망 연계활동

- 마포구청과 어떠한 연계활동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의견개진을 위한 의사소통 통로마련과 연계가 35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책 지침전달 과정에서의 유기적 연계로 23건(24.2%)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8〉 마포구청과의 희망 연계활동 (다중응답)

번호	항목	빈도 (N=95)	비율 (%)
1	규칙적인 민, 관 연계모임	21	22.1
2	정책 지침전달 과정에서의 유기적 연계	23	24.2
3	자료공유를 위한 연계	16	16.8
4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견개진을 위한 의사소통 통로마련과 연계	35	36.8

□ 연계활동에 대한 마포구청의 지원

- 타 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는 데 있어 마포구청으로부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재정적 지원이 46건(3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연계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이 38건(26.6%)으로 나타났음. 또한 인력지원도 32건(22.4%)으로 조사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표 4-19〉 연계활동에 대한 마포구청의 지원

번호	항목	빈도 (N=143)	비율 (%)
1	재정적 지원	46	32.2
2	물리적 공간 지원	25	17.5
3	인력 지원	32	22.4
4	연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38	26.6
5	별다른 지원이 필요 없음	2	1.4

③ 사회복지자원조사 결과 요약 및 분석

㉑ 결과 요약

□ 마포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 중 50개소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유형별 구분으로는 이용 시설 32개소, 생활시설 13개소, 법인 2개소, 기타 3개소로 구성되어 있음. 기관의 세부유형별로는 노인과 장애인 기관이 각 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여성가족기관이 많았음(7개소).

□ 사회복지기관의 이용자 수 및 생활자 수에 대한 파악 결과,

- 월 이용자(실인원수)가 100명 이하인 소규모 기관 또는 500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기관이 뚜렷하게 나타났음.
- 생활시설의 경우 정원대비 생활자수의 비율은 여성가족 관련 시설 74%, 노인 / 아동 관련 시설은 100%인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시설의 수급자 비율은 아동 시설의 경우 100%였으며, 노인의 경우 12% 정도 었음.

□ 조사 기관들의 기관종사자 현황으로, 조사참여 기관들 중 정규직원은 75.8% 였고, 정규직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는 총 직원대비 45.1%정도 었음.

□ 기관의 운영형태로는 정부위탁이 가장 많았으며(48%), 법인직영이 32%, 개인이 10%, 기타 10%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관들의 전체 예산 중 정부보조금의 지원 비율 평균은 56.1%(표준편차 31.2)로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음.

□ 사회복지기관 간의 연계협력활동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 총 50개 기관 중 58%에 해당하는 29개 기관이 그동안의 연계협력활동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타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을 개인적 / 조직적 / 단체간 / 기타의 차원에서 살펴본 결과,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는 ‘과다한 업무량’ (42%)에 대한 개선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음. 조직적 차원에서는 ‘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정도’ (36%), 단체간 차원에서는 ‘주도적 단체의 부재’ (28%)인 것으로 나타났음. 기타 의견으로는 ‘적절한 연계사업의 부재’ 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음.

○ 연계협력과 관련된 정보획득방법으로는 전화(26.9%)나 공문서(23.8%)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였음.

○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정도관련 질문에서 가장 높게 측정된 것은 ‘기관 연계활동 회의에 대하여 직원의 참석을 적극적으로 허락하여야 한다’ (평균 4.18)는 응답이었음.

○ 연계활동 시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 공유와 정보교환’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음(21.5%).

○ 만약 연계활동을 실시한다면 ‘연계활동을 담당할 인력이 지원된다며 참여하겠다’ 는 응답 (32%)이 가장 높았음.

□ 향후 필요한 연계활동에 대한 조사 결과,

○ 서비스 대상자 의뢰 및 관리 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정보 프로그램 개발이 가장 높았음 (19.6%).

- 마포구청과의 연계활동으로는 정책 지침전달 과정에서의 유기적 연계(24.2%)를 가장 선호하였고, 연계활동시 재정적 지원(32.2)과 행정적 지원(26.6%)을 가장 필요로 하였음.

㉞ 결과 분석

사회복지기관(시설)간 연계활동의 중요성 부각

- 이 조사에 참여한 기관은 50개소 뿐이지만, 전체 사회복지기관(시설)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임. 이는 점차 다양화 되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결과일 것이며, 사회복지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을 반영함.
- 대규모 기관들보다는 이용시설 중심의 소규모 기관들이 많은데, 이러한 기관들간의 연계협력활동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

정신보건 관련 기관 및 시설의 확충 고려

- 대상자별 서비스 기관들은 인구 및 욕구 대비하여 확충되는 경향성을 보여왔으며 비교적 다양한 편임.
- 한편, 대상자들의 생애주기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은 양적으로 그 자원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음.

기관 간 연계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개입의 필요성

- 마포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시설)들은 현재의 연계활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조사 기관들은 서비스 대상자를 의뢰하고 관리하는 활동에서부터 기관 간의 연계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음. 한편 과도한 업무량과 연계활동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것, 적절한 연계사업 또는 주도적 단체의 부재라는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4) 복지 수요 분석에 따른 시사점

(1) 마포 현황 및 관련 계획의 총괄 요약

- 서울특별시의 중서부에 위치한 마포구는 과거 낙후된 주거지에서 탈피하여 첨단 디지털산업, 문화·예술 인프라, 친환경 주거지가 어우러진 신흥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음.
- 마포구의 면적과 인구는 서울의 평균 수준으로, 마포구 안에서는 상암동이 가장 넓고, 성산 2동과 공덕동이 대표적인 인구밀집지역임.
- 마포구의 인구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대 당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음.
- 주거지 재개발로 인하여 주민들의 아파트 거주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t=고소득인 중산층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마포구의 인구구조 역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영유아 및 아동인구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음.
- 영유아는 아현동, 취학아동과 청소년은 상암동에 가장 많았고, 노인·장애인·수급자 수는 공덕동과 성산 2동에서 가장 많았음.
- 1인 세대의 증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서교동을 중심으로 한 신촌 지역에는 청년 1인 가구가, 공덕동에는 장년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임.
- 염리동과 망원1동은 노인·장애인·수급자 비율이 높아 전통적 복지수요가 집중된 지역임.

- 마포구의 재정규모는 2017년 일반회계 세출 기준 5,122억원 정도로, 서울 자치구 평균보다 다소 낮았음.
- 마포구의 2017년 재정자립도는 31.5%로 서울 자치구 평균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으며, 의존재원을 비중이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가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
- 마포구의 2017년 사회복지예산은 2,507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나, 기초연금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였음.
- 전반적으로 마포구의 재정현황은 서울 자치구의 평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

-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요 복지대상별 상위계획(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과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
- 영유아 보육 분야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중장기 기본계획이 존재하며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의 품질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함.
- 아동·청소년 분야에도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역량강화, 교육과정 내실화, 참여권 보장, 건강 및 안전체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여성의 경우 전반적인 양성평등, 여성폭력근절, 여성 노동권 제고, 일가정 균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노인 분야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 인구의 고령화에 발맞춘 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노후소득, 건강 및 사회참여, 안전한 생활환경 등의 구축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
- 장애인 분야의 경우 장애인 권리보장, 탈시설화, 건강 및 교육권 강화, 여가기회의 보장,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 저소득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교육과 자활 지원, 근로빈곤층 지원 등이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2) 제 4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의 시사점

① 중산층 지역주민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욕구의 다원화

- 마포구는 상암동 지역의 개발과 낙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신규 고층아파트 공급이 활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중산층 주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음.
- 이에 따라 전통적인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외에, 중산층의 다원화된 지역사회보장욕구가 분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중산층 주민들의 경우 기초생활이나 주거에 대한 욕구보다는, 보육 및 교육, 환경문제, 문화·여가·체육 영역과 관련된 사회보장서비스를 요구하게 될 것임.

②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 기존의 주거지역을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불안정은 증대될 수 있으며, 성산2동, 염리동, 망원1동 등 단독·다가구·다세대 주거지역에는 전

통적 복지대상자로 분류되는 노인·장애인·수급자 가구가 밀집해 있음.

- 전통적 복지대상자들은 기초생활보장, 보건의료, 성인 돌봄, 주거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찾동과 같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노력을 지속하고,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③ 마포구 내 지역 간 격차 및 사회보장 욕구의 상이성

- 마포구는 지리적으로 남북이 짧고 동서로 긴 띠를 이루는 형태임. 이에 따라 지역의 중심 부를 정하기 어려워 지역사회보장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큼.
- 이에 따라 동일한 지역사회보장 시설이나 인프라를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여기에 더하여, 중산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명확히 구분되면서 지역에 따라 상이한 사회보장욕구에 대응하여야 함.

④ 상위계획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지역기반의 특화서비스

- 중앙정부는 각 복지대상이나 영역별로 중장기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자체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시행해오고 있음.
-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다원화된 사회보장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

나. 복지 공급 및 지역 자원 현황

1) 사회복지기관 설치 일반 현황

- 2018년 7월 현재 마포구의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현황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연령적 특성에 따른 구분을 비롯하여 장애인, 여성가족, 정신보건 등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고용지원센터, 법인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지원 단체(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2010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시 조사되었던 현황보다 전체적으로 30% 가량의 증가가 있었으며, 증가된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특성도 다양화 되었음. 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가 표출된 결과이며 점차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라 분석됨.

(1) 여성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여성대상 사회복지시설은 2010년 당시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미혼모지원시설, 가정폭력보호시설, 직업훈련 및 지원센터 등 총 8곳의 시설(센터)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2018년 현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성폭력보호시설, 일본군위안부보호사업을 운영하는 센터 등, 사회적 변화 흐름이 반영되어 여성을 위한 지원센터가 2배 정도 추가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증가세를 보임. 이는 여성에 대한 문제가 증가된 것이라기 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어 지원센터 또한 늘어난 것이라 분석할 수 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가정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자녀양육관련 서비스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총 3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그 외에 미혼모보호시설이 3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 되었고, 성매매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가정폭력보호시설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 되었음. 아울러, 성폭력 보호시설이 3개소 설치되었고, 일본군 위안부를 위한 지원 및 보호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1개소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음.

<표 3-1> 여성대상 기관현황

시설명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센터	미혼모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지원	가정폭력 보호시설	성폭력 보호시설	일본군 위안부 보호시설	직업훈련	합계
2010년 (2차)	1	3	2	1	-	-	1	8
2018년 (4차)	3	5	2	2	3	1	2	18

(2) 영유아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센터 현황

- 보육시설 및 영유아통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한 교육과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영유아와 아동을 사회성원으로 육성함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보호자의 경제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토록 지원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시소와 그네는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례조정을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개소가 있음.
- 2010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165개의 보육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었으며, 민간영역의 보육시설이 전체의 80% 수준을 차지하고 있었음. 2018년 현재, 민간보육시설과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비율은 변함이 없으나, 약 40%의 증가폭을 보여 40여개의 보육시설이 늘어났음. 이중 20인 이하의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가정보육시설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국공립보육시설이 15개 증가, 직장보육시설이 6개소 확대되었음. 시설 숫자는 가정보육시설이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보육정원 아동의 숫자가 증가된 곳은 국공립시설과 직장보육시설로 마포구 전체적으로 공보육의 인프라가 증가되었다고 분석됨. 마포구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부모협동 보육시설이 증가되지 않고 현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공보육의 인프라가 증가되어 이와같은 대안적인 시설운영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지 않았거나, 혹은 소규모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지역사회의 한계성이 존재하는 것 등으로 분석됨.

<표 3-2> 영유아 보육·지원 시설 현황

시설명	국공립 보육시설	법인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부모협동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통합 지원센터	계
2010 (2차)	32	5	4	61	4	59	-	1	166
2018 (4차)	47	3	10	80	4	55	5	1	205

(3) 아동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아동대상기관은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교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파악되었던 현황과 큰 차이가 없음.
-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 여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에는 12개소가 파악되었으나, 현재는 11개소로 줄어들었음.
- 방과후교실은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14개소로 파악되었던 방과후교실이 12개소로 줄어들었음.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음.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을 발견하여 보호, 치료를 의뢰하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아동학대 행위자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추가적으로 지역사회의 아동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하는 장난감 도서관이 2개소 설치 운영되어 있음.
- 아동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적인 증감현황은 아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통계청 조사결과 2011년 0세~14세 까지의 아동인구가 52,922명 이었던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43,580명으로 약 9,300명의 아동인구 감소추세를 보였고, 비율로 따지면 17.7%의 아동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3.9%의 동기 대비 마포구 전체 인구 감소비율인 3.9%(약 15천명)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성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표 3-3> 아동대상 기관현황

시설명	지역아동 센터	방과후 교실	아동시설	아동보호 전문기관	장난감 도서관	합계
2010 (2차)	12	14	4	1	-	31
2018 (4차)	11	12	4	1	2	30

(4)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청소년 대상기관은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당시에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독서실 등 이용시설 위주로 설치운영 되었으나, 금번 현황 파악시 청소년 상담센터 를 비롯하여 직업체험지원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변화되는 청소년 문화와 다양 한 욕구 등을 반영한 지원센터 등이 추가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 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 수련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종합적 인 수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써 기존 1개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양한 문화체험활동기회 및 역량개발을 위한 성장지원, 청소년 자치 활동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기존 1개소를 운영하던 것에서 총 3개소로 2개 소가 추가적으로 설치·운영 중에 있음.
- 청소년에게 면학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상담 및 인성검사, 진학정보서비스를 제공 하는 청소년 독서실은 3개소 모두 폐쇄됨. 그러나, 학업이외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는 센 터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4> 청소년대상 기관현황

시설명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독서실	청소년 상담센터	직업체험 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 원센터	합계
2010 (2차)	1	1	3	-	-	-	5
2018 (4차)	1	3	-	1	1	1	7

(5) 노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의료복지시설, 돌봄통합센터, 주간 및 단기보호센터,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시니어클럽, 치매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

- 으며, 시니어클럽과 치매지원센터는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설립 이후 설치됨.
- 노인복지관은 건강증진, 교양, 오락, 교육, 기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에는 1개소만 운영되고 있었으나, 2018년 현재 총 4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생애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사회활동을 개발하고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인사회활동을 만들어 가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2012년 1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 131개소에서 현재는 152개소로 증가되었음.
 - 노인교실은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켜 급식이나 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치매나 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요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전문요양시설로 구분됨. 현재 마포구에는 5개소의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운영 중에 있음.
 - 주간, 단기보호센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낮 시간동안, 단기보호센터의 경우 단기간 시설에 입소시켜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6개소이던 곳이 2배이상 증가된 14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아울러, 돌봄통합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 및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가정봉사원파견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의거하여 방문요양센터로 전환 운영되고 있으며, 신고된 곳은 총 54개소로 나타남. 방문요양센터는 거동불편 노인이 있는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있음.
 - 노인대상 사회복지시설은 100곳 이상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마포구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와도 관련되어 있음. 통계청 분석결과 2011년도 약 42천명이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7년도에는 49천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17.0%의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임. 이에 따라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연령대의 특징에 따른 주단기 보호센터와 방문요양센터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현격하게 증가된 것은 현재의 인구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현상이라 분석 됨.

<표 3-5> 노인대상 기관현황

시설명	노인 복지관	시니어 클럽	경로 당	노인 교실	치매 지원 센터	노인의료 복지시설	주간단기 및 돌봄센터	방문요양 센터	합계
2010 (2차)	1	-	131	17	-	10	6	4	159
2018 (4차)	4	1	155	14	1	5	15	54	249

(6)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장애인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생활가정, 주간단기보호시설, 직업재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점자도서관, 정신보건센터, 알코올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훈련하거나 여가생활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시설로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있으며 마포구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1개소, 공동생활가정 4개소, 주간단기보호시설 3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직업재활시설과 지역사회재활시설이 증가되거나 신규 설치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이는 장애인 운동단체의 탈시설화 및 정부차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2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에는 1개소에 그치던 곳이 2018년 현재에는 4개소로 증가되어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정신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정신장애인을 위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을 추진하는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4개소가 설립되어 있음.
- 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도서관과 녹음도서관을 대출보급하는 등의 점자도서관이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보건영역으로 장애인관련 기관인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 상담센터가 각각 1개소씩 운영 중에 있음.

<표 3-6> 장애인대상 기관현황

시설명	장애인 종합 복지관	공동 생활 가정	주간 단기 보호 시설	주간 보호 센터	직업 재활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점자 도서관	정신 건강 증진 센터	알코올 상담 센터	합계
2010 (2차)	1	6	3	2	1	4	-	1	1	1	20
2018 (4차)	1	4	3	3	4	4	7	1	1	1	29

(7) 저소득대상 사회복지시설 현황

- 저소득대상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자활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와 푸드마켓이 설치되어 있음.
-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충족을 위해 종합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마포구 내에는 2개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음.
-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을 보유한 저소득계층의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관련 상담,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활공동체 설립운영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음.
- 그 외에 잉여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식생활 관련된 지원을 하고 있는 푸드마켓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축소 운영되고 있음.

<표 3-7> 저소득계층대상 기관현황

시설명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푸드마켓	합계
2010 (2차)	2	1	3	6
2018 (4차)	2	1	2	5

(8) 기타 사회복지시설 현황

- 기타 사회복지시설로는 다양한 고용관련 전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고용복지지원센터 1개소와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홍보, 배치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지속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음. 특히, 가정경제와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관련 문제를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한 금융복복지상담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저소득층을 비롯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2) 사회복지기관 공급 분석

- 사회복지기관 공급을 분석하기 위해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각 대상별 복지기관의 개소수와 2018년 현재 서비스 일일 이용·생활인원을 조사하였음(마포구청, 2018).
- 이와 함께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기였던 2010년도 지역사회복지자원분석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사회복지기관 공급수준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하였음(마포구, 2018).

(1) 여성 대상 사회복지기관

<표 3-8> 여성대상 시설현황

시설유형	2010년		2018년	
	시설명	일인원	시설명	일인원
성폭력	한국성폭력상담소	12	한국성폭력상담소	12
	열림터	10	열림터	10
			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8
가정폭력	사랑의동지	15	사랑의 집	5
	성원가정폭력상담소	5	성원가족폭력상담소	5
	마포가족지원상담소	3	마포가족폭력상담소	3
성매매	한국여성의집	25	한국여성의집	18
	소소뜨라	7	소소뜨라	2
한부모	아름뜰	20	아름뜰	20
	애란원	10	애란원	12
			마포클로버	10
			애란영스빌	20
			나너우리한가족센터	8
직업훈련	중부여성발전센터	2,000	중부여성발전센터	2,000
	여성자원금고	100	여성자원금고	100
가족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17,000
일본군 위안부 지원			평화의 우리집	2
계		2,207		19,235

- 여성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2010년도는 11개 시설을 설치하여 일 2,207명이 이용하였으나 2018년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통합지원센터, 평화의 우리집, 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등이 개소되어 19,200여명이 시설을 이용하여 8배 이상의 이용자가 증가함

(2) 영유아·아동 대상 사회복지기관

<표 3-9> 보육시설현황

	국공립	법인	직장	부모	민간	가정	방과후	계
2010년	32	5	4	4	59	61	-	165
2018년	66	3	12	4	46	75	3	209

- 보육시설현황을 비교해보면, 2010년도에 비해 2018년의 전체 보육시설 수는 약 40개가 증가하였으며, 국공립 보육시설은 약 50% 증가, 직장어린이집은 150% 증가, 20명 미만의 가정 어린이집은 33% 가량 증가되고, 직장어린이집도 8개소가 증가되었음. 반면, 사립어린이집이 감소하지만, 가정어린이집이 증가한 현상 등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접근의 방향이 공보육 인프라 확장과 더불어 시장의 세분화로 양분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그 외에 2010년에는 마포보육정보센터와 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센터가 새로이 설치되었으며 마포구를 비롯한 인근 자치구까지 지역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영유아·아동 대상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10> 아동생활시설현황

시설유형	2010년		2018년	
	시설명	인원	시설명	인원
공동생활가정	신나는그룹홈	6	하늘품	5
	영락의집	5		
	다솜의집	3		
생활시설	삼동소년촌	66	삼동소년촌	70
계		80		75

-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은 1개소가 증가하였고, 생활시설의 아동인원도 다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표 3-11> 지역아동센터현황

시설유형	2010년		2018년	
	시설명	인원	시설명	인원
지역아동센터	나눔	48	나눔	41
	아이도움	18	엘림	19
	서진	21	서진	39
	열린	25	열린	39
	성산행복한홈스쿨	29	성산행복한홈스쿨	40
	옹달샘	23	옹달샘	39
	마리스타	26	마리스타	19
	시냇가에심은나무	19	시냇가에심은나무	29
	옥토	20	옥토	25
	망원	24	망원	49
	행복무지개	29	행복무지개	19
	미공간	16		
계		298		358

-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2010년에는 총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8년에는 11개소 총 358명의 아동이 이용 중에 있음.
- 그 외에 방과후 교실은 2010년에는 14개소, 2018년에는 12개소로 2개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이는 2006년도 18개소 설치·운영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아동인구의 감소와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됨.

(3) 청소년 대상 사회복지기관

<표 3-12> 청소년시설현황

시설유형	2010년		2018년	
	시설명	인원	시설명	인원
청소년독서실	망원청소년독서실	205		
	상수청소년독서실	178		
	염리청소년독서실	237		
청소년수련	청소년수련관	800	청소년수련관	800
청소년문화의집	마포청소년문화의집	200	마포청소년문화의집	500
	도화청소년문화의집	200	도화청소년문화의집	120
	망원청소년문화의집	200	망원청소년문화의집	234
상담복지센터			마포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48

시설유형	2010년		2018년	
	시설명	인원	시설명	인원
청소년지원센터			마포청소년직업체험센터	1,000
직업체험			마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계		2,020		3,802

- 청소년 시설의 경우, 2010년에는 청소년독서실 3개소 및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 각각 확대되어 일일 총 2,020명의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18년도 조사에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진로지도, 직업체험 등의 다양한 상담·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총 약3,800여명의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과 질에 있어서 변화가 발생함.

(4) 노인 대상 사회복지기관

- 노인대상 시설의 경우 2010년도에는 이용시설과 생활시설을 합하여 약 2,119 명의 어르신이 이용 또는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8년에는 7,000여명이 넘는 노인이 이용 또는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3> 노인시설현황

시설유형	2010년		2018년	
	시설명	인원	시설명	인원
이용시설	마포노인종합복지관	500	마포노인종합복지관	1,600
			아현실버복지관	1,400
			우리마포복지관	1,200
			용강노인복지관	200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우리마포시니어클럽	646
여가시설	노인교실 12개소	710	13개소	
노인 요양시설	마포재가노인복지센터	16	마포노인복지센터	4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65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270
	샤론실버	29	그레이스센터	28
	보사노인복지센터	16		
	실버홈애린	26		
	회원노인간호센터	30		
	은혜실버홈	30		
방문요양 센터	마포가정봉사원파견센터	80	54개소	
	보사노인복지센터	80		
	전인복지센터	80		
	서교노인복지센터	80		